

이천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미래유물전

미래 유물전

이천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미래유물전

2015. 10. 1(Thu) ~ 10. 7(Wed)

이천 아트홀 전시장

인사말

이 전시기획은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된 경기도문화원축제〈Festival31〉을 통해 문화원의 미래는 어떠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원은 그동안 지역의 역사, 전통, 인물에 대해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는 '지방문화원이 참 많은 일을 하는데,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을 잘 알릴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두 가지 해결방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하나의 시도가 공연예술동아리가 마음껏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페스티벌31〉이라는 '경기도문화원축제마당'이 있고 또 다른 시도로 추진되는 것이 기획전시〈미래유물전〉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좋은 세상이 올꺼야'하며 현재를 참고 견디며 살아왔지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고 명명되는 개념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순간에서 순간으로 이어져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라 보면,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때문에 기획전시 〈미래유물전〉은 어제를 보고 오늘을 성찰하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하고 싶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현재를, 그리고 지금을 같이 고민해주신 이천 지역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이 전시기획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신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과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님, 이필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준비해주신 이천문화원 조명호 원장님과 임직원,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5년 10월 02일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 상 덕

- ◆ 발행일 | 2015년 12월
- ◆ 발행처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 발행인 | 염상덕
- ◆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 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이천문화원
- ◆ 기획 | 문화집합 36.5
- ◆ 후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천시, 이천시의회
-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 ◆ 전화 | 031-239-1020
- ◆ 팩스 | 031-239-3785

Contents

전시를 기획 하며	008
구만리뜰	010
I. 순정	014
삼대째 농부의 삶	018
양정학교 통학버스를 아시나요	036
일자리 따라 오게 된 이천, 여기서 살거다	044
고려인, 까레이스키, 이천인으로 살기	050
II. 여정	054
이천의 얼굴	058
이천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쯤 미미 사진관에 간다	062
物과 音	068
먼지의 시간	072
III. 진정	076
기록을 기록하다	080
미래유물전시 과정을 지켜보며	083
후기_이천이 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086
전시장도면	094
도움준 분들	096

전시기획의도

민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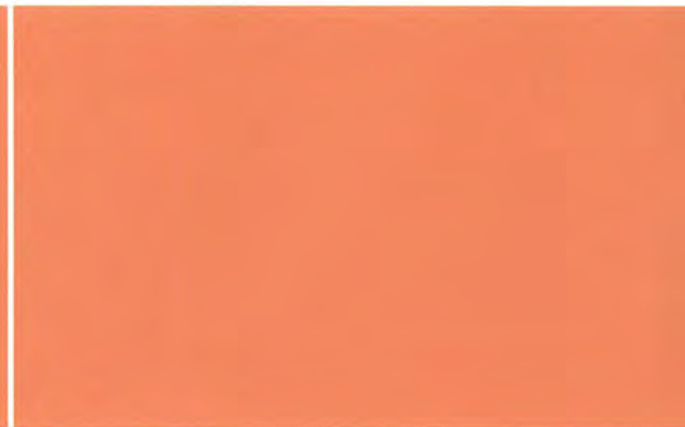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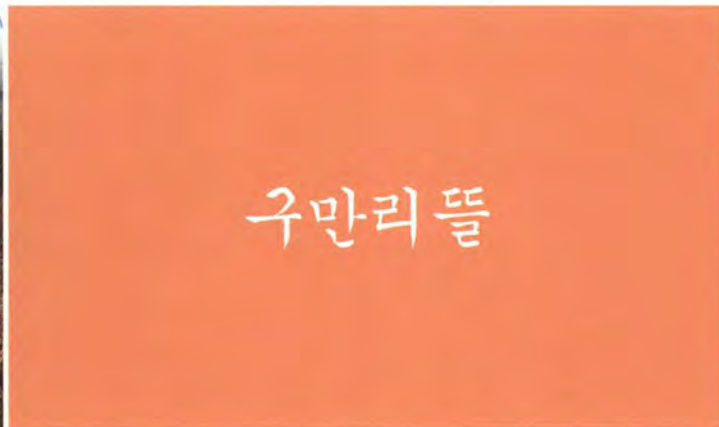
수없이 출몰하는 사건들 속에서 마을을 만든, 마을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숨 쉬는 역사가 아닐 것이다. 지금 것들은 어제의 것들과 그리고 다가올 미래로의 연장이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어 어제, 오늘, 내일은 단절이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는 장들의 펼쳐짐이 지금이 아닐까 한다.

이 전시는 어제를 보고 오늘을 성찰하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는 것이 아니다. 순간순간 순정을 바쳐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능성으로 남아 있는, 일어나지 않은 신비에 대해 꿈꾸고 싶었다.

그들의 삶이 거울이 되어 나의 삶을 바라보는 순간, 그 어떤 것이 가장
경험으로 발견되길 바라면서 일어나지
상황



아크릴 거울(1,200mm×2,100mm×12장), 추수한 벼
벼제공_이천 농부들(김기연, 남대현, 박병호, 박수하, 박임하, 신영일, 이광식, 정하권, 조명호)
협력_이천문화원



이천 사람치고 구만리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이천에 살다보면 어떤 계기로든 구만리들을 만난다.

이천의 젓줄, 복하천이 선물한 황금빛 구만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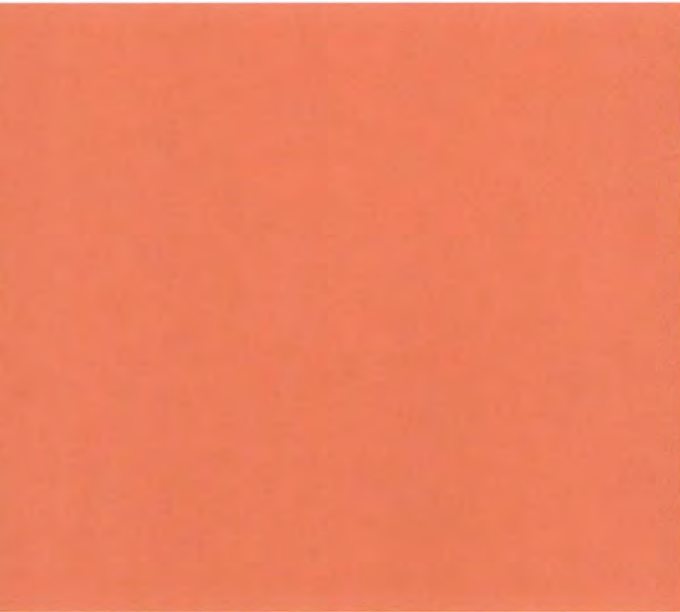
복하천은 호법면을 지나며 매곡천, 동산천, 원두천 등 크고 작은 하천과 합류하여
이천 시내 동남부를 지날 즈음엔 제법 너럭히 흘러들어 마침내 드넓은 구만리들을 품어낸다.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다 이천IC를 거쳐 시내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구만리들을 지나야 한다.

먼 타지에서 돌아오는 길. 집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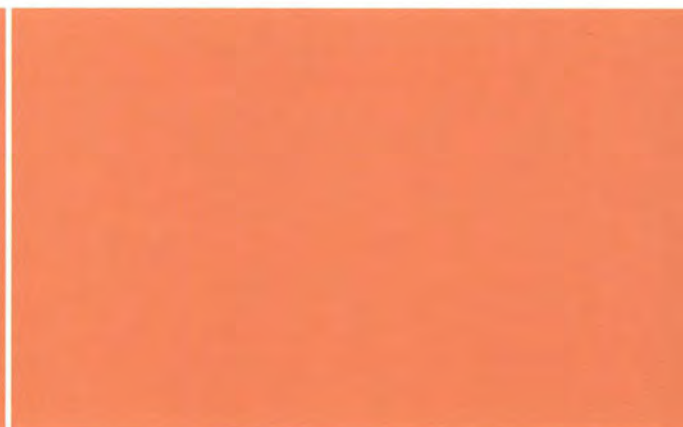
누구나 누런 금빛으로 일렁이는 구만리들을 바라보며

호뜻한 미소를 지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이천 사람이라면.



할머니방 | 식탁(시누이들이 사준, 당시 시가 50만원의 집들이 선물, 식탁으로 사용하기에는 높아서 사용 안함)_소리재생, 스피커



사람들의 이야기 순정純情

곧장 내달리기만 했던 놓을 수 없는 삶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살아내기의 반복
되풀이되던 일상은 삶으로 모아지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순정이라 부르고자 한다.

농부의 삶, 삼대 째 현재진행형

(김정식 79세, 용면리/ 아내 서금례 76세)

용면리에서 태어난 김정식 할아버지

모가면에서 트럭타고 열 아홉에 시집 온

서금례 할머니

그리고 아들 셋과 손주 여섯

삼대로 이어진 각자의 삶을 합하면 210년

지금도 여전히 용면리에서의 삶은

피고지고 또 피고지고...

<영상 | 같은 사건 다른 기억, 구술기록 재구성, 모니터
(50인치), 오래된 사진 제공 | 김정식(9000mm×6000
mm)>

김정식_집에 돌아와보니 이 동네는 폭격 많이 맞고
집도 많이 타고 그랬더라고. 그래도 우리 집은
폭격도 안 맞고 타지도 않았지.

스물 여닐곱 됐을 때 찍은 건데, 바지저고리꾼이 나고, 앞에 있는 분들이 어머니, 아버지예요. 왼쪽은 우리집 식구고, 가운데가 내 동생이고, 애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고 있는 애들이랑 내 동생이 안고 있는 애랑 해서 삼형제예요.

서금례_시집을 오니까 흙벽돌 삼간집에 요만한 쪽마루 하난데 아홉 식구가 사는 거야. 시누들이 많으니까, 아휴, 아홉 식구가 사는데 방 두 개서 어머니가 낳은 자식은 어머니가 데리고 자고 내가 낳은 애들 셋하고 다섯 식구가 잤지.

구정때 찍었어요. 이 쪽에 할머니가 안은 것은 우리 큰 애, 할아버지가 안으신 거는 우리 둘째, 우리 학필이 막내는 우리 시동생이 안고 찍은거여. 저 애기가 낳은 지 두 달 만인가 안고 나와서 처음으로 사진 찍은 거여. 포대기에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때는 명절이면, 한복이라고, 쌀 거라도 해입었는데 조끼도 저렇게 털렁하네.

김정식_이 집이 옛날에 천석꾼 집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흐지부지 재산을 탕진하고 집을 팔게 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집을 사왔지. 6.25 전쟁 때 폭격을 하도 많이 맞아서 집이 쏠리고 해서 많이 고쳤어요. 근데도 어떻게 집이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또 엄청 더워요. 그래서 그냥 그때 헐고 새로 지은 거지.

서금례_여기 이사 온 지는 지금 47년 됐어요. 우리 막내이 두 살 먹어, 시월에 낳아가지고 3월에 이사 온거라고. 이 집이 옛날에는 신둔면에서 제일 좋았대요. 한옥집에다가 마루가 삼칸이야. 그리고 이 건너들보가 한 아름다도 더 되게 굵어. 조그만 집에 있다가 큰 집에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다락에서 청소할라고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나는 것 마냥 무서운거야.

그러니까 그 때 안방만 빼고 수리를 해서 석유 보일러를 놓고 불을 안 때게끔 했어요. 그래도 또 옷풍이 있어. 그냥 네 기둥만 남겨놓고 이거를 다 뺄돌려 다 뜯었어. 근데 옛날 집은 손대도 옷풍이 있더라고. 어른들도 계시니까 따뜻하게 살라고, 해서 집을 또 새로 지었지. 10년이 넘으니까 또 추워. 그러니까 또 추우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작년 여름에 또 고쳤어요. 세 번을 고친거지. 이제 만족해.

김정식_어릴 때는 6.25 전쟁나서 먹을 게 없어서 어른들하고 산에 가서 도토리 따다가 묵 만들어서 그것만 먹고 살았어. 그 때 하도 물려서 남들은 별식이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도 도토리 묵은 안 먹어. 6.25 때 저수지에서 이리로 피난민하고 사람이 이리로 무지하게 걸어나다녀서 엄니가 도토리묵 썰가지고 거기다 놓고 팔았어. 저수지 막은 데 복판으로 해서 광주 지나 장암리 도드람산

▶ 새 집 앞에서 찍은 옛날 할머니 사진과 지금 사진





◀ 김정식할아버지의 어머니_상량고사
 ▲ 수여선 기동차
 ▶ 김정식할아버지의 큰아들

질러서 피난민들이 많이 다녔지. 도토리 팔 던 데가 거기야.
 그래가지고 그걸로 우리도 송아지 한 마리를 샀어. 송아지 한 마리 사 키워서,
 당시에 눈을 죄 싸게 파니까 그거 몇 마지기를 사놨었어.
 서음례_시집 와서는 도토리로 해먹고 살았지. 도토리묵만 해먹어가지고 저
 양반이 지금도 도토리묵을 싫어해. 물려가지고, 나는 안 먹었던 거라 맛있는데,
 그 때는 마을에 큰 도로가 없어서 당시 국민학교도 소로길 이런 데로 걸어다녔

지. 아침 먹으면 요밑 동네로 해가지고 저리해서 걸어가고 학교 끝나면 또 그리
 걸어오고. 기차로는 여주서 수원가는 거 있었어요. 나도 옛날에 군인 갈 때 수원
 까지 열차타고 가보고 그 이후엔 일부러 타본 거 없어요. 옛날에는 기차 타려면
 마장 어디가면 비아리 못 올라가서 속도 켈켈거릴 적에 뛰어 올라가서 타고 그
 랐지. 우리 어려서 국민학교 다니고 그럴 때 이천 갈려면 그 땐 목탄차, 나무 때
 가지고 가는 차, 그거 수광리서 그냥 몰래 올라타가지고 저 기치미고개 올라갈
 때 또 켈켈대면 뛰어내리고. 기치미 고개는 이천 넘어가는데 다산고, 거기가 기
 치미 고개야.

김정식_그 전에는 이천에 나무시장이 있었어요. 여기서 끌고 가면 나무 시장에다
 마차하고 대놓으면 이천 시민들이 보고서 사러오는 거지. 하도 나무를 해다 때서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 여기서도 광주가서 해오고 하지. 아침 먹고 가면 한 짐,
 점심 먹고 가서 한 짐. 하루에 꼭 두 짐씩 해와가지고 집에서 알뜰히 때고 남는 거
 팔아먹고 그랬지. 그 때만해도 가랑나무 굵어서 한 거지. 막대기 나무는 하지도
 못해. 산림감독 무서워서 나뭇가지도 제대로 못 잘랐어. 솔잎 떨어진 거 가랑잎,
 이런거 갈퀴로 굵어서 나무하는 거야.



◀ 서금례_친정식구와 찍은사진. 지진머리에 대한 에피소드

서금례_우리 큰아들. 두 살 때. 마당인데 뭘 하느라고 이렇게 널어 놓은데다가 포대기 깔고 찍었어. 나무 해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훌쩍 넘기면 가랑잎이 우루루 헤지면은 흙 묻을까봐 거기다가 포대기 깔고서 앉혀 놓 거지.

결혼에 대해

김정식_아내는 어른들이 중매로 해서 그냥 만났지 뭐. 옛날에는 내가 스물 두 살에 결혼했는데 어른들이 가보고 그냥 날 잡고 결혼했지 뭐. 서로 사진도 모르고 결혼사진도 찍은 게 없어요. 아내는 여기 모가면 소고리 사람인데 거기 우리 고모가 살고 그 전에 연관이 있고 해서 어떻게 결혼하게 됐어.

서금례_그때는 얼굴도 안보고 결혼을 해서 신랑이 누군지 몰랐어. 하인이라고 있어. 쫓아온 사람이. 근데 그 이가 잘생겼어. 더 잘생겼어.

그 때는 가마타고 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거리가 머니까 한복입고 트럭을 타고 오는데 셋이 넷이 탔는데 신랑이 누군지 몰랐어.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바지저고리 입은 사람이 신랑이래.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어.

사진 좀 가져와 보라니까 사진도 대. 나만치도사진이 없더라고. 한 번도 안 찍어봤대. 없대. 안 보내. 도민증 사진이라도 달라니까 그것도 없대.

친정어머니, 언니 이 때 처음 사진 찍은 거야. 그래서 군인 갔다 와서 머리가 짧은 거야. 스물두 살에 찍은 거야. 열아홉에 시집 와가지고 큰 애를 오년 만에 낳았어. 스물넷에 출산했어. 군대를 일 년 미루고 있다가 일 년 지나서 간 거지.

입을거리

김정식_옛날에는 옷도 우리 어머니가 숨 심어가지고 물레로 실 뽑아서 베틀짜 맨들어서 바지만 해줘도 아주 큰 호사였지. 그렇게만 해도 호사고 옷도 제대로 못 입었죠.

등걸잠뱅이라고 광목으로 홀 바지저고리 해 입는 게 다였지. 신발도 없어서 송 판조각에 끈 이어서 겨다(게다)를 만들어서 신었지. 돌부리에 채여서 발가락도 죄까지고, 신다가 끊어지면 또 들고 맨발로 다니다가 집에 와서 끈 다시 만들어서 신었지. 나중에는 다이야신이라는 게 나왔어. 수전집 같은 데서 자동차 타이어를 깎아서 구겨서 만드는 건데 이놈의 걸 신으면 뻗뻗해서 여기저기가 들렁거려가지구 뒷구머니(발꿈치)가 까져서 또 못 신어. 그래도 내불진 못하고 신발은 맨날 들고 맨발로 다녔지. 가게에서 돈 주고 산 건데도 아퍼서 못 신었어. 그러다 나중에 까막 고무신 나와서 신었지

서금례_나도 바느질 같은 거 하다가 시집 왔는데, 어른들이 광목으로다 해 입었어. 그래서 인자 그냥 삶아서, 두드려서, 흥두께해서 인자 이렇게 꼬매. 근데 이 등솔이 바른 쪽으로 가는 건지... 지금도 모르겠네. 왼쪽으로 가는 건지...고렇게 가야되는데, 반대쪽으로 여머서 옷을 꼬맸다고 시어머니에게 혼났어. 그 등솔 가는 것도 모르고, 그것도 못 배워가지고 왔느냐고. 그때 그게 가는대로 그냥 해서 꼬매긴 다 꼬매놨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넙죽하니까 훌렁 넘어간 게, 반대로 넘어가가지고 혼났어. 왜케 서러워. 그리고 그냥 비만 와도 친정엄마 생각이 나서 울고. 그래서 그냥 비오는 날 이려고 내다보면, 왜 이렇게 엄마...엄마 냄새...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은지...

김정식_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야

서금례_이 사진은 여주 신록사. 버스 타고 나들이 간 거야. 아니 여주 능이야. 아기 안 낳았을 때니까 스물 셋. 우리 동상이 월남을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사진기를 하나 사가지고 와갔고 쫓아가서 우리애들을 찍 많이 찍어줬어요.

할머니 방

이야기 | 서금례, 구술기록 7개 에피소드로 재구성(총 15분), 소리재생기, 스피커

1. 삼간집 아홉식구 (2:27)
2. 시동생 등교 위해 새벽 밥 지어야하는데, 하나 밖에 없는 시계는 시부모님 방에 (3:24)
3. 메진 조밥에 그리워진 보리밥 (2:10)
4. 새로 지은 집 이래 고치고 저래 고치고 네 번을 짓다시피 (2:40)
5. 솜틀어 시어른 옷 짓다가... (1:21)
6. 비가 오면 엄마냄새가 나... (2:22)
7. 숲 덩어리로 지졌던 파마, 한 번 하면 신선된 기분 (1:28)

트럭타고 시집 오던 날

결혼식 날 처음 봤지

느낌이나마나 나이가 어려서 왔으니까 뭐 좋은 것도 모르고 어른들이 보내줘서 왔는데.

▶ 서금례_인터뷰중_다리가 안구부러진다면 엉거주춤상태로 얘기나눔



그때 당시에 여기 시집에서 환갑상마냥 이렇게 차렸더라고.
 이 동네는 밥술이나 조금 먹는 집 털은 차려주더라고. 며느리 상이래요.
 그래서 아랫목에다 잔뜩 차리고 신랑 색시 피박 받듯이
 어른들 앞에다가 절 하고 절 하고 그걸 다 싸서,
 여기서 한 개도 안 건드려요. 다 따로따로 싸서 박스에다 몇 박스 해서
 친정에 보내는 거야. 이바지식으로.
 그 동네가 산동네야. (그래서)다 노나 먹었대요. 옛날에 사탕도 뜬한 때잖아.
 시집 잘 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명일에 가서 화장 하면 사춘올케들이 부잣집 시누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가 본다고 이리고 지금까지정도 아주 부잔 줄 알아.

시집와서 생활

시집을 오니까 흙벽돌 산간집에 요만한 쪽마루 하난데
 아홉 식구가 사는 거야. 시누들이 많으니까.
 아휴, 아휴 식구가 사는데
 방 두 개서 어머니가 낳은 자식은 어머니가 데리고 자고
 내가 낳은 애들 셋하고 다섯 식구가 잤지.

 우리 집이야. 옛날에 요런 집에서 살았어요.
 우리 큰아들. 두 살 때. 흙 문을까봐 거기다가 포대기 깔고서 앉혀논 거지.
 어려서부터도 우리 큰 아이가 그냥 공부만 그렇게 할려고 들어.
 여기 이사 와서도 바깥 마당에 놀면서 애들이 공찬다 하면

엄마 나 신발 좀 감춰달라 해.
 마루 밑에 슬쩍 넣고 공 차려 안 나가요. 밤에도 내가 실컷 자다보면 1시반이면
 그때꺼정도 눈이 새카마면서 책상머리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야.
 초등학교 졸업을 맡는데 2학기 때 날더러 오라고 그러더라고. 시골에서 가져갈
 게 없어서 겨란 두 꾸레미하고 짚 이렇게 해가지고 까막콩 두 되를 가지고 사택
 으로 갔어. 세상에. 육학년 때까지 시험 본 게 홀랑 만점이며. 가위표 하나 없고
 다 똥그래미여. 선생님이 이런 아들이 어딴느냐고, 가방도 좀 새 거 사주고 운
 동화도 사 신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처음 까만 운동화 끈 여기 달린 거 사신겼
 어, 육학년 때. 내내 공부를 잘 하더라고.

결혼생활

얼아홉에 시집와서 어머니하고 꼭 오십년 되는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께 잘했다고 효부상을 두 번 탔어요.
 옛날에 시어머니께 싫은 소리를 좀 할려도
 문 밖에 나가면 효부상 탄 사람이 그런다 할까봐 못하고,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하고 딱 오십 년을 살고 가셨어.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하고 더 오래 살았어.
 시어머니가 잘해주셔. 며느리 흉이라면 요만치도 안 봐.
 나도 내 며느리들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해요.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배워서 그래.
 지금도 꿈에 보면 맨날 쫓아 댕기셔.
 넘어지셔서 입원하셨을 때도 다른 자식들이 와 잔다 해도

나만 자래. 큰며느리만 알아. 그래서 딸인 줄 알았대.
지금도 형제끼리 여적지 친목계를 해가지고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신문에서
우애 있다고 뽀로가 났어.

미미사진관에서 찍은 미아이 사진

신혼여행은 못갔어요. 우리 친정 사진인데,
그 때만해도 저 양반이 군인을 안 갔어요.
장개 들고 열흘 있다가 가는 영장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군대를 한 해 연기를 했어요.
그 때는 이런 거를 미아이 사진이라 했어.
약혼사진을 미아이 사진이라 했어.
처갓집에 간 김에 미미사진관이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거기서 찍은 거여.
(신록사 사진) 이 사진은 여주 능이야.
아기 안 낳았을 때니까 스물 셋.
우리 동상이 월남을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사진기를 하나 사가지고 와갖고

쫓아가서 우리 애들을 찍 많이 찍어줬어요.

쌀가마니, 결혼승낙의 한 수

저도 공부도 못했어요. 담 너머 너머서 조금 배우고,
없는 사람은 없는 끼리 결혼하더라고.
우리 친정도 어려우니까 여기는 그래도 우리 친정보담 부자지.
쌀가마가 많은 거 보고 왔어,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는 가을에 홀랑 쌀을 찢어서 이 양반 자는 방에다가 쌓아놔다가 누가 논
을 판다면은 쌀가마로다가 흥정을 해.
오니까 쌀가마가 한 삼십 가마가 쌓였어.
쌀가마 때문에 디밀어 났는지 우리 어머니를 그 안에다 놓고서 점심을 드리더
래. 쌀가마를 보니까 이거 쌀가마 많으니까 우리 딸 배는 안 고프겠다 해서 승낙
을 한 거여. 그랬는데 배는 안 고프았어.



◀ 서금례 친정식구들과 김정식할아버지
제대한지 얼마안되서 찍은 사진
▶ 여주능 피크닉



일과 생계

나도 안 해본 거 없이 일을 엄청 했어. 옛날에는 새끼를 쫓아요. 밭로다 새끼 파서 들래 있지. 그걸 해서 꼬면 한 도래가 750원이야. 하루에 기를 쓰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꼬면 열 다섯 도래, 만원 돈 하나까. 옛날에 돈 만원 돈 하면 많이 하는 거라고. 그거를 해다해다 내가 다리가 아프다니까 이 양반이 거기다 모다를 달아준겨. 모다 다니까 여기가 뱅뱅뱅 돌아가. 이거 넣는 것도 손 쥘 사람이 넣지, 맨날 굶어먹는 거야. 빨리빨리 해야지. 겨우내 꼬면 40만원을 하는데, 우리 큰아이 대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이 74만원이었어. 겨울기면 그렇게 해서 하고, 옥수수 심어서 따다 파는 걸 25년을 했어, 이천에다. 양배추 오이서부터, 오이는 이 양반이 가락동 시장으로 팔러 다니고 참외도 하다 망하고 적채도 하고 양상추도 하고 그래가지고 읍에 장호원상회 어디상회 단골 다 뚫어놓고 내가 죄 해다 줬어. 장사할 때는 이천을 장날마다 다녔어. 경운기에다가 옥수수를, 빨간 자루 있지? 한가마 들어가는 거, 거기다 꺾테기째 따서 담으면 백 개면 하나여, 그거를 잔뜩 한 열 다섯 개씩 주문을 죄 맡아놨다가 누구네 몇 개 몇 개 달라면 싼고 가면 나는 몰라도 우리 할아버지는 아는 사람이 많아. 신랑 체면이 있어서 내가 당신은 사람 없는 데다 경운기 갖다놓고 여기서 이켜 주기만 하면 내가 그 집 문간까지 이고 갈테니까 이켜달라해서 다녔지. 내려놔다 일어나질 못해서 못 가지. 이켜 주면 내가 가게다 다 놓고, 이 사람은 경운기 앞에서... 하여간 숨다시피 했어. 신랑까지 일 시킨다고 할까봐 내가 창피해서, 맨날 지금도 신돈 사람들이 나

만 보면 일 좀 그만 하라고 할 정도로 그냥 일을 엄청했어. 그래서 애들 뒤 대고 빗 안지고 그냥 밥은 먹고 살아요. 애덜이 지덜이 열심히 해서 직장에서 한 우물을 계속 파니까 걱정이 안 되고 사는 거지, 꾸준히 하니까.

아이들 키우기

친척들 네 집이서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다 떨어지고 우리 막내아들만 붙었어. 옛날에는 과외를 시켰어요. 잘사는 집덜은 선상을 불러다 삼십 만원, 오십 만원 주고 과외를 시켰다고 과외 가르킨 애들은 다 떨어지고 우리 막내아들은 시골서 학원 하나 안 다니고 날로 대학을 붙었다니까, 그 때는 아주 좋았지. 나는 이 머리, 그 때도 파마한거야. 시집올 때부터 했는데 옛날엔 볼 파마라고 이렇게 파마를 맡고 거기다 숯덩어리를 넣어서 숯 철로 은근하게 맡았어, 뜨거워서 디는 사람도 많았지. 그래서 옛날엔 파마하면 '머리 볶고 왔어?' 그랬지. 그 래가지고 머리 결이 안 좋아, 별안간에 뜨거워서, 아이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거 기다가 또 뭘 디고 그런다고, 은근하게 하고, 그래서 그냥 머리 짓는 사람이 숯으로 가, 꼭 이렇게 하면은 마음 놓고 있지 않고, 하나까 그냥 풀라 그러고, 뜨겁다 그러면 보조해주고 그랬다가, 그 전에는 그렇게 지졌어. 머리 처음 파마하던 시절에. 그래도 모냥낸다고 열심히 했지. 지금도 머리가 좀 길면은, 머리 짓고 싶어하고 그랬지. 아휴 그전에는 파마 한 번 하면은, 그냥, 뭐 신선되는 걸로 알았지. 머리 한 번 지지면은 엄청 기분이 좋았어. 그 전에는 머리 짓는 게 200원인지 얼마지 했는데, 머리 짓는 것들도 특별한 일이 좀 있고 특이해야 짓지 머리 지지? 맨날 땀기하고 가랑머리, 이렇게 따서, 양갈래로 했지. 가랑머리는 내가 혼자 따도 되

니까, 맨날 그랬다고. 시집을 적까진 그렇게 했지. 우리 아버님이 큰 애하고 똑 같이 닮았다고 맨날 그랬는데...

그때가 스물아홉이여. 애 낳고 나서, 설 쇠고. 옅 10월에 낳았걸랑, 10월에 낳고서 1월 달이니까는 스물아홉이여. 그러니까 젊었지.

우리 학필이, 요거, 그러니까는 두 달 되었나, 만 두 달이나 석 달 고때 된건데, 그래도 저렇게 크게 나왔네, 사진이. 이사오기 전 집에서 10월에 낳고, 여기 3월에 이사왔어. 3월에 이사왔는데, 정월에 찍었어. 그러니까는 두 달이나 석 달 고때여.

이게 학균이여. 지금 모습이 조금 그래도 있지? 이거는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잘 생겼어. 키도 저, 팔십사야, 키가 엄청 커. 그리고 인물 중에 제일 애가 끌밋해요. 어려서 그렇게 예뻐었는데, 지금도 그냥 시골서 농사지어도 그냥, 머리가 좀 고불머리야. 그냥 물 발라서 이렇게 하면 화같고, 솟도...

아들 셋 중에서 머리가 쥘로 안 빠졌어.

그리고 나가면은 아주 그냥, 그냥 늘씬하고 키도 큰데다가 엄청 똥똥해. 몸무게가 구십오여. 구십오인데도, 워낙에 키가 크니까, 그냥 덩치가 좋아보여. 처음에는...보면은 똥똥하고 배가 나왔어.

아버지가 크니까는 아들들이, 큰애는 준치고 막내하고, 둘째만 커.

아이들 도시락 싸줄 때 내가 특별히 달걀 하나 부쳐 가지고 보냈지.

우리 큰 아이가 입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달걀을 투가리다 찌서 어른상에다 놓으면 할아버지가 냄기면 먹으라고 자기 밥은 안 먹고 깔쭉깔쭉 안 먹고 있어.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이거 먹어라 그러면 고깃만 싹 씹어먹고 그랴.

부엌에서 몰래 계란 하나 부쳐서 위에다 덮어주면 남자애들은 좋은 반찬 있으면

죄다 훔쳐 먹는데, 그래서 '엄마 나 가져가야 하나도 못 먹으니까 속에다 싸줘' 그랴. 그래서 계란을 부쳐서 속에다가 먼저다 넣고 위에다가 밥을 얹고 고춧잎하고 말랭이 말려서 특히 그거 하면 물이 안 흘러. 고기다 해서 밥 옆에다 이만~한 통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 해주고 그랬지.

선상이 한 번은 밥 먹는 거 보고 내가 갔더니 그래. 그 공부 잘하는 아들 도시락 반찬 잘 해서 싸주지 그냥 말랭이만 싸주고 김치만 싸줬느냐고 호통도 치더라고. 큰 아들은 잘 하니까 선생이 위해주고 육학년꺼정 반장했어.

중학교 가서 반장하고, 반장으로 끝났어. 개가 상 타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지.

옛날에 조합에다가 공제 들은 자녀들. 무슨 장학금이라나? 몇 번 탔다니까. 하여간 큰아들 공부 가르칠 땐 아주 신나게 가르쳤어. 지가 알아서 척척 하고.

시집오니까, 시누가 다섯이야. 하도 시누가 많으니까 하나는 속이더라고, 속이면 안 좋은 건지 시어머니 젓 먹던 3살 아이가 크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갔어.

그게 막내시누지.

막내시누가 있으면 지금, 한 저기, 벌써 환갑은 금방 넘었겠지. 하여간 뭐 우리는 저기 옛날에 오막살이 집, 삼칸짜리 집인데, 그냥 요렇게 마루가 쪽마루 하나 있어. 쪽마루 하나 있어가지고, 방 두 개짜린데, 시누들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우리 안방에서 주무시고, 저이하고 나는 다른 방을 썼어.

원래는 결혼 안에 열흘 있다가 가야되는 영장이 나왔는데 안가시고, 한 해 묵어가지고 일년 있다가 군인을 갔지. 그때는 시누들하고 한 방을 쓰는거지, 손위에 시누는 시집을 가고, 시누 셋하고 나하고 넷이 이렇게 자는거야. 그 방도 길기만 했고, 위에는 쌀가마를 놓고, 아랫목으로만 자서 바짝바짝 껴서 잔거야. 그때 당시에 내가 시집을 적에 우리 친정어 어려웠어. 우리 어머니가 신랑집을 보러왔



▶ 김정식 할아버지 젊은시절
 ◀ 김정식 할아버지 옛날집 앞에서



는데, 나 자는 방으로 점심을 주드래요. 주는데, 쌀가마가 좀 있으니까, 가면은 배는 안 고프겠다 싶어서 우리 어머니가 마음에 있어서 오셨나봐.

너 거기로 시집갈래? 뭐이 시집 간다는 것도 모르고, 남자를 어딜가 사겨본 것도 모르고 하니까 어른들이(말씀하시길 내가) '몰러'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와서 사는데, 다 큰 시누들 셋하고, 우리 둘하고, 어머니 아버님하고 몇 식구여... 하여간 그 조그만 집에서 우리 애들하고 아홉식구가 사는데, 애들 셋하고 이렇게 자면, 가로로 자고, 우리 학군이가 제일 맏이잖아. 이렇게 자고 그랬지.

사진으로 보는 가족사

(사진보며) 예전에 살던 세 칸짜리 집 찍은 건데 아들들이 확대를 해줬어요. 구

정때 찍었어요. 그래도 그 때 애들이 어려서 찍은 저런 흑백사진이 없어요. 그래도 저게 있어가지고 애들이 들여다보면 웃어 죽지.

이 쪽에 할머니가 안은 것은 우리 큰 애, 할아버지가 안으신 거는 우리 둘째, 우리 학필이 막내는 우리 시동생이 안고 찍은거여. 저 애기가 낳은지 두달만인가 안고 나와서 처음으로 사진 찍은 거여. 포대기에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때는 명절이면, 한복이라고, 싹 거라도 해 입었는데 조끼도 저렇게 덜렁하네. 저때 썸은 시누들도 시집가고, 그래가지고, 시누들이 많아도, 시누들하고도 한 번 투닥 거리는 것도 없었어.

나는 그냥, 싫은 소리 하는게 싫어서, 그냥 내가 참고, 눌르는 성격이지.

(대게 시누들은)이길라고 막..그래. 옛날부터 지금도 시누는 시누여. 올케한텐.

그런데 (우리)시누들이 안그래.

시누들이 오면은,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안계셔도 오면은, 포옹을 하면서 언니 너무 힘들었지 그렇게 해주지, 그냥 안해.

우리가 잘 놀러가요, 시누들이 자 이렇게 포옹을 해주고 잘해.

이거는 결혼하자마자 애기 없을 적에, 남편이 군인 갔다가 휴가 왔었어. 그래가지고 그 때 사진 찍었어. 군대에 있어서 빼적 말랐어.

손녀 딸이 옛날에 할아버지 탈렌트 같다고 그래.

밥의 역사

시누랑 같이 컸지, 막내 시누가 7살이야. 막내 시누가 7살, 저 시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이라 맨날 도시락을 싸줬어. 우리 막내 시누는 양정학교를 나왔어. 걸어 땡겼지, 고등학교를 간다니까 우리 아버님이 너 걸어 땡길라면 땡기라고 하면서 방은 안 얻어줬어. 그러니까 나 못 걸어땡긴다고, 인자 안 땡긴거여. 근데, 걸어 다녀서라도 땡겼으면 고등학교를 배우는데,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새벽에, 새벽같이 먼동만 트면 걸어가는거야. 밥 일찍해서, 그리고 옛날에는 보리쌀을, 콩보리밥을 먹기 때문에 그냥 보리를 바로 해서 해야, 밥이 하얗고 맛있더라고. 저녁에 박박박박 씻어서 어느 정도해서 담가 놔다가, 아침에 그냥, 화덕이라고 이렇게 되가지고, 양수 없어서 불때는 거 있잖아. 조그만 집에 뒤에, 요만하게 화덕이 있으면, 거기다가 해갖고, 우리 시동생 고등학교 땡길 때, 시누들 땡길때, 보리밥을 했지. 근데 애물이 끓이면 12시야. 시계가 안방에 딱 하나 있었거든, 며느리 방에 걸어주면 시간을 보는 데 노인네들도 답답하니까 안방에 걸어놓은 거지. 그러니 시간이 몇 시여, 잠을 달게 자다가, 이렇게 보면, 물소

리가 나면은 다 (날이)셋는 줄 놀라 깨기도 하고, 12시를 치고, 1시를 치면, 도로 들어가 자면은, (새벽부터)걸어가야 하니까 잠을 못자는거야. 못 일어날까봐, 그래가지고, 맨날 그냥, 도시락 반찬도 고춧잎 말려서 말랭이해서 싸줬지.

옛날에 도시락 반찬이야 뭐 다들 어려운 시절이니까 그랬겠지만, 도시락 반찬 맛있는 거 하나 못싸줬어. 그래도 시동생이 대한민국에 우리 형수같은 사람 없다고 가면은 맨날 그렇게 나를 우해야, 우리 시동생이, 아침에 보리밥을 해서, 쌀(밥)을 복판에다가 꼭 박아서 도시락에다 조금 섞어서 줬지.

맨날 반찬은 말랭이.

보리를 애물을 끓여가지고, 안 헤지게 할라하면, 보리쌀을 조금 벌리고, 복판에다 쌀을 먼저 넣어, 보리가 어느정도 퍼지면 쌀을 복판에다가 딱 놓고서, 꼭 눌러고, 위에다가 보리쌀을 조금 덮고서, 밥을 끓이면은, 고게 고냥 있어. 안 헤져. 그러니까 속 박아서 옛날에 쌀밥을 누구를 조금 해줄라면, 그렇게 해줘야해. 가운데다가 꼭 박아가지고, 위에다 보리를 이렇게 해갖고, 물 부어서 끓이면은, 쌀이 고대로 그렇게 익지. 보리는 물렁했던거니까는 끓으면 이렇게 끓으면 후떡 후떡하기 때문에 헤지는데, 쌀은 원체 찰지니까 고대로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밥을 풀라면, 쌀이 고냥 꼬닥하게 말이어, 고대로 있다고. 그래가지고선 인자, 할아버지 쌀밥 좀 드릴라면, 고걸 나눠서 드리고, 도시락 세 개 만들고 했지. 그렇게 옛날에 쌀들이 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쌀밥 주고 싶으면 그렇게 꼭 박었다가 그렇게 해줘. 그런데 지금은 뭐, 보리밥이 더 별미잖아. 보리를 일부러 팔아다 먹잖아.

근데 그냥 시집을 오니까 여기는 그냥 조를 그렇게 많이 심어요.

나는 보리밥을 먹어갖고 조밥을 안 먹고 (시집)왔어, 근데 그냥 조밥은 이 차조

같으면 괜찮은데.

메조는 비비면 우르르르 헤지고, 물에 말면은 과자 씹는 거 마냥 짜각짜각해서, 노란 거 같은 메조가 있어. 내가 물어봤어. 엄니, 왜 이렇게 좁쌀이 메져요? 밥을 물에다 말아 먹으면은 가자같고... 그랬더니, 애 모르는 소리 마라, 차조는 밥을 하면은 착 까라 앉아서 조금이고, 메조는 퍼져서 많아 갖고 하는거래. 그 래 갖고 보니까 이 동네 차조 심는 거는 별미야. 왜냐면 정월에 산에서 수리치라고 떡 해먹는게 있어. 수리치떡, 수리치라고 그거를 쭉마냥 뜯어다 삶아놨다가 정월에 차조로다가 떡해서 암반에다 쳐서 맨길라고 그거 하는 집이나 그 차조를 심지, 밥 해먹는 건 다 메조야. 그래서 그냥 그 떡이 엄청 맛있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냥 불 때면 흰죽 주고 불에다가 없어놓으면, 부~욱 해갈고 조청 고아 가지고, 조청에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수리치기 라는게 산에 씨가 졌어. 없어. 지금은 썩으로 하지.

여튼 그 당시 보리가 없고 겨우내 조밥을 먹는데 너무 싫었어. 이 동네는 다 조를 심어. 보리를 안 심어. 그래가지고 1년 내 조밥이야. 그리고 쌀을 조금 두면은 그냥, 어디로 간지도 없고, 조밥만 하는거야. 거기다 차지게 먹으려면 여름에 감자를 밥에다 찌, 그래가지고 그거를 쳐 이겨서 하면은 차져지고, 보리밥도 차지게 할라면, 감자를 거기다 밥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면 차지고, 하도 밥이 해져서. 근데 나는 그냥 그 보리밥을 먹다 조밥을 먹으니깐 그것도 한 두 번 이지, 맨날 먹으니깐 보리밥만 못하더라고.

지금은 그냥 그런게 좋지만 그래도 시집오기 전에 먹던 거를 먹어야 하는데, 안 먹던 거를 먹을라니까 조밥이 그냥 보리밥만 못하더라고.

그리운 엄마, 친정

비가 오면 엄마생각나지. 가서 엄마 옆에 가 있으면 엄마 냄새가 그렇게 좋아. 그래서 그렇게 애들이 엄마 하고 달겨 드는 게, 이해가 돼. 그래서, 저 자식이 엄마, 부모가 하루에 시란계를 세 번을 그렇게 뒀는데... 그래서 그 애들을 그 망한 균을 엄마가 품어준데. 그런 소리를 내가 듣고서, 열아홉에 시집와서 조금 힘든 게 있으면, 친정에 가면, 그렇게 엄마 냄새가 좋은거야. 엄마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엄마, 엄마 그러면 애가 왜 다 큰 애가 이러냐고 하하지... 그렇게 엄마가 그림더라고. (눈물이 그렇 고인다, 눈물을 훔치면서) 괜히 눈물이 나네. 이제 노인네들이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열아홉에 시집와서 못하는 건 많고, 힘은 들었겠지... 힘은 들었겠지.

친정은 애 안났을 적에는 한번씩이라도 갔는데, 내가 5년만에 첫 애를 낳았어. 근데 애만 데리고 가면 애들이 친정에 가면 병이 나는 지. 그래가지고, 애들만 낳으면 3년씩 친정을 못 가. 애가 가면은 설사를 하고 와. 그런데 우리 막내 동이는 더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너는 어떻게 가서, 친정에 가서, 애를 고시래를 못하고, 그렇게 병나 오냐고 그래서, 내가 친정에 차라리 안가고 말지... 이려고선 인자 안갔어. 안갔는데, 인자 이 동네 사람이 우리 친정에, 친정 동네로 시집간 사람이 있어서, 그 이가 오면은, 그냥 내가 (그이가) 엄마 같고,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와. 그이를 보면은, 친정을 그냥, 3년씩 못 가니까, 아유 그래가지고, 애들을 키울 적에는 정말 친정을 못 갔어. 애들이 그렇게 병이 나. 그러니까 그런게 있어. 그러니까 시집 살이, 내가 애들 병 나면 시집살이 하니까, 애낳고 3년 만에 다 땡겼어, 애 크는 거 친정에 구경시키고 싶은데도 친정에 얼마 못 땡겼다고.

삼형제 이야기

5년 만에 애를 낳았는데, 첫 애를 아들을 낳았지. 둘째 셋째도 아들을 낳아서, 삼형제잖아. 딸이 지금 없어. 5년 만에 낳으니깐도, 그래서 열아홉에 왔어도, 스물넷에 초산을 했어. 그래서 우리 큰 애가 바로 와서 낳았으면 지금 한 육십살 되었겠구만. 그런데 늦게 낳는 바람에 재가 나이가 저런데, 나하고 같이 와서 낳은 애들은 벌써 여덟씩 되었어. 신여덟씩이야.

우리 막내 동서가 내가 시집오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신여덟이야. 가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애기를 또 낳어. 나 시집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애 둘을 낳아가지고 우리 집으로 옳고 온 거야. 나는 애를 못 낳는데 그러니까 창피하고 질투도 났어. 나는 애를 못 낳는데 남은 애를 막 낳으면 질투가 나서 딸 낳으면 고소하고 아들 낳았다 하면 샘이 나 죽겠어, 친구끼리. 옛날에는 아들을 낳아야 귀한 대우를 받고 그랬잖아.

그러더니 난 그냥 아들만 셋을 낳은 거야. 스물 넷에 첫째 낳고 한 해 걸러 스물 여섯, 스물 여덟에 단산했다니까. 그러니까 애 낳은 것 같지도 않아. 삼십안에 다 낳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일찍 애들이 결혼을 또 일찍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늦게 낳았어도, 손녀딸이 시집을 가게 생겼어.

그 때 참 기뻐지.

첫 아들 낳았다고, 우리 아버님이 오막살이 집 그 밑에 느티나무 아래다가 그 여름에 그냥 멍석을, 멍석을 이렇게 만들어.

여름이면, 가래, 그베, 타작해서 나락 널을 라고, 거기에 우리 학군이 일주일 댔는데 안고 나가서. 애기 좀 이렇게 포대기애다 잘 수건애다 쌓으라고 그러면은 자랑 시킬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그 멍석 맨드는데 갖다 놓고, 그냥 사람들이 5

년 만에 아들 낳았으니까 죄 들여다 보고 그랬지. 내가 고모들이 많아서 애를 안고 한 번 낮잠을 못 잤어. 그냥 젖만 먹이면 뺏어가. 뺏어서 옳고서 칭얼 돌아다니면, 나는 집에서 밥해먹고 맨날. 세탁기가 있어 빨래하고 그런거 하느냐고... 애 차지는 못해. 고모들 때문에 우리 큰 애는 땅 한 번 딛어서 흙 묻는 적이 없었어. 고모들이 많으니까 맨날 옳고 막 돌아댁기고, 주위에서 좋다 그러고, 참 땅에 한 번 기어본 적이 없었어.

고모들이 많아서 우리 학군이 곱게 자랐어요. 시골 산다고 마당에 빗자루 하나 안 쓸고, 그냥 논도 어디가 있는 지도 몰라. 지금 그냥, 어려서부터 해다가, 공부한다고 그냥 우리 아버님이 될 놈은 떡잎부터 안다고, 절대 학군이 일 시키지 말래. 할아버지가 그렇게 학군이를 위했다고. 식구가 많으니까 마당 쓸기는 개 차지도 안되지. 애들 세대에는 나가서 도니까는 농사를 지어봤어. 뭐, 학필이는 그래도 옛날에 경운기로 딸딸 논 썰리는 걸 해봤는데, 우리 큰 애는 경운기도 안해봐서 몰를거야. 못할꺼야.

그러니까는 그냥 힘다구리가 없어. 좀 다구지고 그냥 이렇게 좀 억센 걸 해봐야 하는데, 억센건 뭐 그냥 안해봤어. 우짜다 오면 또 잠자기가 바쁘지. 뭐, 나갔다 오면은 여간 졸리워? 그냥 저 방에 쓰러지면은 못 일어난다고, 일은 진짜 안시켜 봤어.

딸은 하나 낳았는데 죽은 애를 낳아서 못키웠어. 그래서 그때부터 안 낳았지. 그전에도 피임을 좀 했었어. 학필이하고 두살 터울인데 못 키우게 되길래 아휴 이거 내 팔자에 없는 거 낳았다 싶었지. 옛날에는 애를 낳을 때까지 집에 지키고 있다가 낳았지, 병원에 가는 사람 드물었어. 있는 사람들이나 갔지,

그러니까 그냥 밤새 애쓰고 새벽 5시 되었는데, 죽은 애가 나왔지.

그래가지고 내가 고생 엄청 했어. 이렇게 붓고, 그래서 한약 먹고 그냥 호박 삶아먹고 붓기 다 빼고, 고생했지.

그런데 인제 그냥 애를 쓰니까 우리 아버님이 한약방에 가서 약을 다섯 첩을 지어서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 하나 지어서 지푸라기로 이렇게 해서 많이 가지고 다녔어. 근데 그냥 약 한 첩을 먹고 밤에 자는데, 오줌을 밤새도록 요강으로 하나 가득 누고 났더니, 붓기가 쭉 빠지면서, 여기가 창자가 오그라 붙었어.

그래서 일주일이나 옆으로 자지, 똑바로도 못 잤어. 퍼면은 여기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 그거를 먹으니까 창자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면서, 배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살았단니까, 약이, 산모는 한약이 좋아. 산모는 한약 먹는게 사람한테 좋아. 한약은 은근히 이렇게 튼튼하게 하니까 주사보담...그래서 내가 애는 한약이 좋은거라 그래서 우리 둘째 며느리가 손녀딸이, 손주가 일곱이야, 셋 중에서, 일곱인데 손주가 딱 하나야. 학군이 둘, 딸 둘 낳았지, 막내도 딸 둘 낳았지, 개들도 더 낳을 수 있는데 옛날에 셋이면은 학자금 안 준다고 둘만 낳으래가지고 그래서 단산했어요.

둘째는 시골사니까 아들 낳을 때까지 낳는다고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거야. 근데 애가 애를 낳고서는 7월에 낳았는데 덥다고 그냥 파자마도 안 입고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이 나오게 쇼파에 앉아서 밥 한숟갈씩 먹고 그러더니 아마 해산독이 되었나봐.

집에 와가지고 그냥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한약방에 가서 약을 반재를 지어서 줬는데, 아주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냥 겨우 맥이 나왔다고. 지금까지도 그 며느리가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어머니가 약 사준게 너무 잘

나아서 어머니는 항상 내가 그냥 참, 너무 고맙다고 그래. 내가 먹은 거, 그때 먹어보고, 좋았기 때문에, 한약이 산모들에게 좋은거야.

소중한 물건_노동의 도구들

저기 옛 세칸짜리 집에서 일루 이사올 때는 돈 많이 벌었어. 할아버지가 손재주가 좋아서 정미소 기간수로 일했어. 기계 웬만한 건 다 만지지. 그래서 일년에 방아찢으면 돈 받아다 쌀로 바꿔서 집 샀지.

옛날에는 쌀가마로다가 논 사고 그랬어. 옛날에는 쌀 두가마 주고도 논 사고 그랬어. 우리가 이 집터랑 저기 논 천 삼십평을 쌀 95가마주고 사온거야. 그런데 지금은 집만해도 그거 갖고 못 사잖아.

밭농사는 안해본 게 없어 그래서 우리 첫째 고등학교1학년 때부터 해서 그 애가 우리 엄마 대단하다 그런 거야. 옥수수 장사를 25년 했어.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따서 읍에다가 써서 파는데 다섯 집만 단골하면 그냥 우리 것 하고도 다 팔고도 모자라. 집으로 전화오면 돈 갖다 쏟아놓고 가고, 또 쏟아놓고 가고 했지. 그러면 하루에 70만원을 벌었는데 그렇게 해서 애들 공부 다 가르쳤지. 쌀 갖고 못 가르쳐. 밭 일해서 그래.

그리고 하우스 두 동에 취를 심어서 그게 일년이면 400씩 했어. 그걸 이만한 봉다리애다 딱딱 집어 구멍 뚫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담아가지고, 여기 이천 00에만 20년이 넘었는데, 거기애다 계속 땀어.

그렇게 취로 돈 많이 벌고, 옛날에 양배추하고 양상추하고, 적채 빨간 거 있지? 고때, 적채 심을 적에, 하도 비싸 가지고, 적채 다섯 가마, 저렇게 빨간 자루 있지? 거기다 다섯 가마 가지고 가락동 시장을 갔는데, 오십만원 받아가지고 왔



◀ 50년된경운기
▶ 뒷문(신식대문자리에 있던 옛날대문)

어. 저 이가 가져가서. 그냥 일년 농사 지은 것보다 더 많이 가져왔어. 제일 비싸게, 남 안할 적에.

그러더니 그 이듬해는 좀 싸.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참 돈 잘 벌었어. 그냥 애들 시골서 농사만 지어가지고 할 수 있어? 밭이 돈이 많이 나오지, 논은 안 나와. 아이고, 안해본 게 없어.

저 밖에 있는 게 옥수수 내다 판 경운기인데 50년은 더 되었나봐. 농약 주고 그럴 적에는 통 옮기고 하는 데에 아직도 써요, 우리 할아버지가.

바깥 가마솥도 지금도 쓰지. 메주 쓰고 나물도 삶고, 예전엔 소 여물 주고 그랬지. 이젠 안써먹으니까 녹이 나. 집은 그냥 두면은 옛날 물건이 남아나는데, 자꾸 집을 들어내고, 또 우리가 구질구질한거를 싫어해가지고, 저 양반이, 뭐면, 죄 갖다 내버려.

집으로 보는 변천사_옛집과 새집

그렇게 지내다가 여기 이사 온 지는 지금 47년 됐어요. 우리 막내이 두 살먹어, 시월에 낳아가지고, 3월에 이사 온거라고, 3월 초에 이리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집이 지어서 글치, 옛날에는 이 집이 신둔면에서 제일 좋았대요. 한옥집에다가

마루가 삼칸이야. 그리고 이 건너들보가 한 아름도 더 되게 굵어. 그게 인제 튼튼하게 이런 식으로 건너댄거지. 대청마루에다가, 안방에 다락이 있었는데 꽤 컸어요. 그 전에 고모들 있고 그럴 때는 다락에 가서 잤어. 여름에 더우니까 다락에 장판 깔아놓으면 아주 방갈어. 우리 큰 애도 다락

에 가서 잤어. 다락에 가 자다가 떨어져가지고 우리 둘째 아이는 기브스를 한 적이 있어. 학군이도 거기서 한 번 떨어졌다는데, 둘째 아이가 떨어져서 크게는 안 다쳤는데 팔을 다쳐서 내가 병원을 데려 간 적이 있었다고. 팔을 잘못 짚어 떨어져가지고, 다락에서 자다가 떨어진 거 그 얘기들을 하면 우스워 죽겠어.

그런데 조그만 집에 있다가 큰 집에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다락에서 청소할라고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나는 것 마냥 무서운거야. 오막살이 얇은 데서 살다가 지금도 높은 아파트 가면은 현기증이 나듯이 그렇게 현기증이 났어. 그냥 그렇게, 그냥 그냥 살았는데, 큰 머느리가 얻게 됐는데, 옛날에는 불 때느라고 곤로에다가 석유를 넣어서 밥 해먹었잖아. 근데 또 머느리가 시골 와서 무슨 불을 때, 우리라도 불 때서 밥할라면, 불이 일로 떨어지고, 절로 떨어지면, 얼굴빨고 치마도 태워 먹고, 맨날 머리도 까슬리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때 안방만 빼고 수리를 해서 석유 보일러를 놓고 불을 안 때게끔 했어요. 그래도 또 웃풍이 있어.

▶ 담장위를 올려놓은 집수리에서용했던 기와장



옷풍이 있으니까지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다 뜯어서, 집을 고쳐가지고 살 것다고, 그냥 네 기둥만 남겨놓고, 이거를 다 뺏돌려 다 뜯었어. 이 마루는 그냥 나무 마루인데, 빨간 벽돌로 싹 해고, 기와집으로 해놨지. 근데 옛날집은 손대도 옷풍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찌 사나해서 첫 애 직장가서 3년도 안되서 돈도 없는데 지원받고 용자받고 해서 또 지었어요.

포크레인 하는 사람은 이렇게 튼튼한 집을 왜 부시냐고 했지만 어른들도 계시니까, 따뜻하게 살라고, 해서 집을 또 새로 지었지. 우리도 집에다 돈을 폭 들였어. 세번을 고친거지. 행랑은 헐어 제치고. 하여간 그 전에도 집 한 번 하면 천오백만원, 이천만원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해서 죄다 내버리고 그러면서 지은거야.

이거 지을 적에도, 우리 칠천 사백이 들었다는데, 그때도 엄청 비싸게 지은거래 이게. 그때도 많이 비싸게 지었어. 그런데 또 추운거야. 이 집이. 이제 10년이 넘으니까 또 추워. 인제 요즘은 집을 지으면 단열이 잘되가지고요 훈훈해요. 근데 이게 또 추운거야. 그러니까 또 추우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작년 여름에 또 고쳤어요. 이천만원 들여서 저 문, 아파트에서 하는거 현대꺼로 다 해서 방 잠금장치 다 돼서, 한 번 달아지면 바깥에서 열지를 못해. 그래서 큰 애가 아휴 그냥 엄마 저기 밖에서 나가서 빨래 널면 여기 못 여는데, 그래. 걱정말어, 저기 또 셋문 있

어... 그랬어.

이걸 하고 나니까 여기가 아늑하니까 심야 보일러인데, 그것도 털나와. 그러니까 집을 네번을 했어. 여기 이삿짐을 다 들어내고, 여기 다 다시 바르고, 보일러 다시 깔았어. 옛날 보일러가 잘못 깔아서 집이 춥다 그래가지고, 작년 여름에 또 고친거야. 해마다 그냥. 이제 만족해.



사람들의 이야기 순정

관장 내달리기만 했던 농을 수 없는 삶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살아내기의 반복
 되풀이되던 일상은 삶으로 모아지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순정이라 부르고자 한다



▼ 김정식 할아버지, 서금례 할머니의
 같은 사건 다른 기억 영상 전시



농부의 삶, 상대화 현재 진행형

그 편에는 이전에 나누어지지 않았고, 역사에 묻고 싶은 여러 이야기
 각자하고 대응하면 어떤 시민들이 보거나 사회에서 겪고 있는 상황들이
 역시 나누어 나누어 없었어, 여기에도 나누어 나누어 나누어 나누어
 가만 한 틈, 중심 먹고 가만 한 틈, 주류에 두루 주류에 나누어 나누어
 일종의 먹고 남는 거 할 거고 그렇지, 그 편에는 나누어 나누어 나누어
 가지, 약대가 나누어 나누어 나누어, 산업에서 나누어 나누어 나누어
 못 팔았어, 술을 팔아선 거 가팔, 이런 거 없애고 나누어 나누어 나누어

우리 편어를 두 살 때, 마음편을 둘 나누고 이렇지 못한 편에서 나누어 나누어 나누어 나누어 나누어
 불행 넘기면 가팔이면 우유가 우유가 우유가 우유가 우유가 우유가 우유가 우유가 우유가 우유가



서금례 어르신 구슬 기록 중(용면리)

양정학교 통학버스를 아시나요

연병옥(90세, 증포리), 텍스트 | 연병옥 구술기록
중에서, 사진(304.8mm×406.4 mm), 영상 | 양
정학교 통학버스길 재현 촬영, 지도 설치 | 이천
시 지도 위 4개의 통학노선 기록과 장소에 대한
기억(만화_땅콩이닷), 가족사진 | 연병옥 소장

운전으로 살았어, 군대에서도 결혼해서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 여기 온지 68년이 됐어요.
강릉에서 살다가 6.25때 운전병 했지.
양정학교버스는 이름만 학교 명의를 빌렸다 뿐이지
학부모들이 다 모여가지고 매일 회의도 하고 해서
운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차 끌고 다니는 건 거저야.
지금은 집이 이렇게 많지만 그 때는 동네마다 버스
가 서고 그랬지.
전체 4개 노선이 있었어요.
제일 많은 노선이 호법, 둘째 노선이 모가, 셋째, 넷

째는 여주코스랑 이남리-신근리 코스. 호법이랑 여주 코스를 한 차가 가고, 나머지 두 코스를 다른 차가 다녀서 차 두 대가 다녔어.
 사람이 많은 노선은 60명 정도, 한군데는 40명 정도, 여주 쪽은 40명도 안되고, 이가랑(다른 운전사) 한달씩 번갈아서 노선을 다녔어요.
 힘들긴 했어도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다시 한 번 하고 싶어.
 이게... 다시 한 번 제대로 하고 싶어.
 그래도, 양정학교 버스 할 적이 좋았어요.
 왜냐면 학부형들이 이렇게... 이렇게.... 위해 줬어요.

기억을 따라 가는 통학버스 4개 노선(2015년 6월 19일 기록)

호법노선을 따라

그 때는 아주 산골이었어.

예전엔 이 길이 쪼그만하게 포장도 안되어 있는 비포장도로였어요.

여기 애광원이 있었지. 그 때는 아주 산골이었어.

못는 동네여서 여기 땅 값도 안나왔어.

버스 운전하던 때가 60년 더 되었나? 중심지(땅값) 반도 안 되는

몇 십 원짜리 땅이었지.

그 때는 여기가 밤고개였어요.

옛날 얘기해서 뭘 해. 그 때 여기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6.25때, 도랑 근처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미군들이 기름을 막 쓰니까 기름이 새가지고, 여기는 곡식이 안 돼. 뭘 심지를 못해. 그 기름, 요요 다리 건너 하우스 있는 곳.

(길을 설명하며)여기가 사고뭉치야. 급커브였지. 산이 이렇게 쭈욱 나와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고 사람 많이 죽었어. 이 전에는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갔



어요. 이 길은 없었고 저 마을 돌아가지고 이리 저리 돌아가지고 돌아나왔어.
(주유하며) 이 건물 주인이, 아주 여기서 벌어서 여기 집을 지었는데 지금은 헐렸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때는) 호법갑부였지. 부인이 그 때 버스를 타고 땡기니까 내 차로 많이 땡졌지. 공짜. 여기 갑부인데, 그 정도 태워줘야지. 그 땐 개인 차가 없었어요.

저기서 병원을 했는데 그 땐 약이 뭐 있었오. 베니실린 한 대 놓으면.. 그 때는 귀하고도 그거 밖에 없었어. 지금은 길이 이렇게 났네.

학생이 하나 있는데, 여학생.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못내니 차를 못타. 그래서 내 공짜로 졸업할 때까지 태워줬어요. 그 동네 이름이 신갈.

저기도 하나. 지금까지 아파서 버스를 운전 못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 방학 때는 월급이 없는 대신 그 때는 지방에서 차가 귀하니까.

뭘탈까 후생사업이랄까 그냥 차를 이용만 해.

문화원장이 책임지고 그렇게 했는데, 통학버스를 운영 안 할 때는 요청해서 단체로 관광을 가거나 그랬지.

모가노선을 따라

그 여학생, 지금은 잘 사는지

여기 집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저 위에 식모살이 땡기는데,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의복도 제대로 못입고 다녔어.

그래서 그냥 아침에 거저 태워다 주고, 저녁에 거저 태워다 주고.

여기는 개다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여름철에 개 잡아먹고 한참 놀았지.

여기 또 한 사람이 사는데, 여학생이.

여기 있는 조카 딸내미가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못시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은 했는데, 타라고 그냥 타라고(했지).

이 동네서 식모살이 땡기는데, 차 타고 올라가고 하더라도.

아침에 맞는 차가 없으니까. 저기, 저 집에 살았어, 그 때 공짜로 태워줬던 학생. 지금은 시집을 가서 사는지.

(치즈마을-모가초교- 지나며) 그 때 여기가 호랭이가 내려오던 곳ियो, 지금은 산이 다 없어졌네. 난 호랭이를 보진 못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여길 땡기질 못했어요. 그 때에는 산골 같았거든.

다리 건너 동네로 들어가면 길이 아주 나빠요.

그 동네에서 학생들은 많이 탔는데 그 땐 여긴 뚝길이라서 차 한대 겨우 간신히 지나갔지. 그 때는 여기 다리가 없어가지고 물 위로 바로 다녔지.

그 때는 요 아랫길이었는데.

(송갈 2리 마을회관에서) 여기 아무도 없나. 그 땐 이 마을 회관이 없었고요 집 앞에서 사람을 태웠어요. 4명인가.

한 코스당 70명이 뭐야, 아유. 그 때 차비가 2천원, 3천원, 4천원 그렇게 나왔어.

(다시 차를 타고) 산이 이렇게 확 짊여가지고..

그 때는 산골이었는데. 아유, 이제 생각하면 정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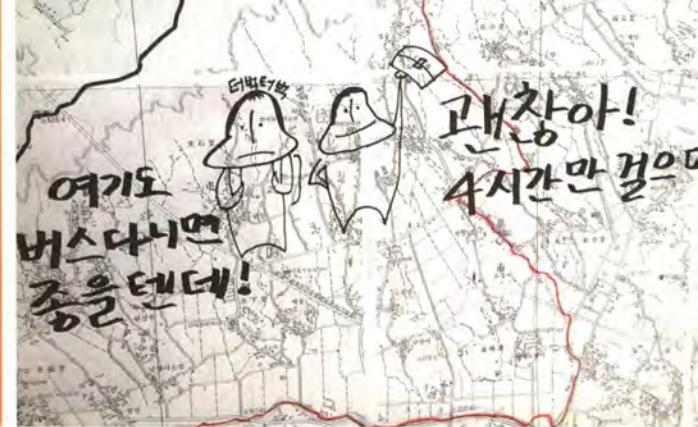
(아무말 없다기) 그 놈을 한 번 보고 갔음 좋겠구만, 여자니까 어디로.. 뭘 시집 갔지. 거 부모네들은 다 죽었으니까. 근데 그 때도 참혹했어.

외가댁 신세를 지고 산다던가, 뭐 이렇게 조카 딸내미가.

(2850부대 앞을 지나며) 여기가 공군부대. 저기서(송갈2리) 애들 태워 나와서, 여기 모가로 와서 태워서 또 나갔지. 그 땐 차가 뭐 좋은가. 참 힘들었어요. 길이



◀ 기억을 따라 가는 통학버스 노선 재현
▶ 신문면은 학생이 많지 않아 버스가 다니지 않았다



나 이렇게 좋으면 몰라. 좁은 길, 매일 빵꾸 안나는 날이 없고, 빵꾸 나면 학부모들이 회의해서 수리하고 했지.

응암 휴게소를 지나면서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면, 다시 한 번, 제대로 하고 싶어

여기는 큰 길로만 태웠어. 응암리는 학교 서무과장 집이 있어서 안 태울래야 안 태울수가 없어. 그 때는 여기 집이 다 없었어요. 저기 삼거리에 주막집이 하나 있었어. 이 거 다 없었어 저기 저 아파트, 저게 밭이었어요, 밭.

저 위에 신호등 있는데서 그 때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탔어요,

신해 1리, 장평 1리 들어가는 길에서 버스가 시작했지.

여기는 그 때 서무과장 집이 여기 있어서 그 덕에 사람이 탔지. 중간에 굴다리 지나서 사동리에서도 아이들 태우고.

그 땐 굴다리 없었어요. 이 노선하고 여주 노선하고가 정말 기름값이 안 나오게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호법하고 여주 붙이고, 모가하고 여기하고 붙여서 운행했지.

통학버스 그만 두고 유치원 차나 명동버스 운전했어요. 힘들긴 했어도 젊은 시

절로 돌아가면 다시 한 번 하고 싶어. 이게 다시 한 번 제대로 하고 싶어. 그래도, 양정학교 버스 할 적이 좋았어요. 왜냐면 학부형들이 이렇게 (손을 위로 받쳐들면서) 받들어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양정학교 운전수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벌이가 이 운전해가지고 벌이가 안되요. 자가용이 너무 많아.

이천에서 양정여자종합고등학교가 갖는 의미는 크다. 1946년에 설립된 이 학교는 올해로 70년의 역사를 갖는다. 당시 이천 시내 뿐 아니라 이천 전역을 통틀어 여자고등학교는 양정학교 한 개 뿐이었다. 학교가 코앞이어도 여자들에게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던 시기를 지나 학력이 곧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출세 길로 여겨지면서 딸 아들 가리지 않고 부모들의 교육열망이 드러나던 시기가 되자 양정여고는 꼭 들어가야 하는 관문이었고, 시험에서 합격해야 들어 갈 수 있는 좁은문 이었다.

이천에서 하나밖에 없었던 양정여자종합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은 이천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상징이다. '양정학교 출신이여~'라는 말로 이미 교양과 덕망을 갖춘 준비된 여성으로 인정받음을 의미했다. 양정학교 다니는 것은 시내로 출입하는 통로이기도 했고, 도시로 나가는 준비와 같았다.

이천은 80년대 초반 도시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시외버스망이 나뉘 촘촘해지기 시작했다. 어려웠던 시내로의 출입이 조금 숨통 틈이는 시기였다.

85년 전후 만해도 읍면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학교 기숙사에서 살거나 자취를 했고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장거리 통학이 대부분이었다. 양정학교 통학버스는 이러한 부모인의 열망이 담긴 소중한 자녀를 나르는 이동 수단이었지만, 시외버스의 등장으로 곧 쇠퇴를 맞이한 셈이다. 바로 농촌사회에서 산업도시로 나가는 시점에 통학버스가 잠깐 2년쯤 존재했던 것이다.

평생을 운전으로 사셨던 연병옥 기사 아저씨는 운전을 기술이라고 말씀하신다. 삶의 기술이 취미로 변하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생 하반기에 도전한 통학버스 사업을 접었다.

연병옥 기사 아저씨를 만나 처음 얘기를 나누면서 '그 얘긴(통학버스 운행하던 얘기) 지긋지긋하다'는 말로 시작했지만, 이야기의 끝은 '다시 한 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말로 마무리하셨다. 그래도 '그 때'가 운전사로서 대접 제대로 받은 때였다고 하면서, 통학버스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두 달여를 소진했다. 누구나 알 법한 이 사건을 웬만한 인맥을 다 동원했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다. 없어도 이렇게 없을지는 않을 텐데, 통학버스 같은 건 없었다고 단정하는 어르신들도 계셨다. 두 달여간 이천시내 정보망에 전혀 노출되지 않자 연병옥 운전기사 아저씨의 기억을 뒷받침 해 줄 만한 사람이 더 절실해졌다. 그리고 만난 분이 그 당시 양정여자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이었다.

그 사실이 사실인 게 사실입니다

(이영주, 전 양정중학교 국어선생님)

주로 내가 기억하는 거는, 그때 애들이 많이 타고 다닌게 대월, 대포리에 대월면, 대포리쪽 있는 애들이 많이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노선이 두 개 노선인가 뛰었기 때문에 대포리 애들이 학교를 굉장히 일찍 왔어요. 처음으로 실고 들어오는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담임할 때 우리 반 애들을 시간 낭비 하지 않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게 하고, 저녁에 갈 적에도 늦게 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수업 끝나면 차가 갈 때까지 아주 놀잖아요.

개네들을 도서관에 몰아가시고 공부하게 하고...

그때는 학생수가 600명 이상 정도 되었을꺼예요,

아마, 한 반에 많게는 70명이 넘었었으니까. 그때 애들이, 대포리 보다도 대포리 그 전 동네, 단월동 있잖아요. 단월동에 있는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개네들이 상위권에 포진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대포 중학교, 아니 거기가, 대포리, 대월 아니 단월동인가, 단월리 거기 사는 애들이 평균 점수가, 내가 학교 별로, 동별로 성적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천초나 이천남초 학교 애들이 높았잖아요, 성적이. 그런데 개네들보다 월등히 그쪽애들이 평균 점수가 훨씬 높았었어요.

공부를 시키니까, 우리 반 애들을 시키니까, 그쪽 사는 애들이 전부다 같이 남아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 반에 1등은 아닌데, 그쪽 사는 애가 2등인가 3등 했는데, 이대, 그때 당시엔 이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거기 사는 애들이, 박정희, 유향숙, 그 다음에 홍씨인데, 홍 뭐가 있는데, 개네들이 상당히 공부를 잘했었어요. 거의 10등권 안에 들 정도로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제가 장동리를 기억하는 게, 그쪽에 사는 애들이 있었는데, 공부를 꽤 잘 했어요. 집이 어려워가지고 그때 버스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걸어왔었거든요. 네, 학교까지요.

그리고 설봉산 너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야, 도드람 산 이쪽편 쪽으로, 강대천씨 작업장 있던 데...

거기 애들이 설봉산을 넘어서 다녔어요. 네,

산 넘어서. 네, 여학교는 이거 하나 밖에 없었어요.

면단위에 남녀공학, 뭐 학교가 없었죠. 여학교는 오로지 이거 하나 밖에.

그렇죠. 다 나와야죠. 이천에서 여자들이 공부한 거는 양정 때문에 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아예 공립이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버스운행 했던 당시) 그때 (기사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

키도 크잖아요. 덩치도 좋. 그때 당시만 해도 선생님들이 놀러다니고,

학교 어려울 때, 자가용이나 이런 거 없을 때, 선생님들 태워가지고, 그 차 타고 놀러도 가고, 또 낚시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차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제가 술 하면, 남한테 이제까지 조금 마신다 소리를 듣지를 않았는데,

그 분하고 같이 먹으면, 내가 질 정도예요. 나이가 그리 드신 분이....

지금 사시는 데가 이고(이천고등학교) 쪽이라 들었는데...

(통학버스 운행은) 학부모 회의가 아니고 이사장님 의지였다고 할 수 있죠.

그때 당시에는 학부형들이 입김이나 이런 게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천이 그러니까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려운 애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업료를 못 내가지고, 그, 못 내갓고 어려운 애들,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오는 애들도, 가난한 집 애들은 많이 못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때 당시 중학교 애들도 수준이 상당히, 수준이 좀 높았던 거 같아요.

아주 뭐, 요즘처럼 장애아나 이런 애들은 아예 중학교 들어올 꿈도 못 꿀 때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몇 사람이, 중학교 선생님들이 모임을 결성해갓고 애들 장학금도 주고 그랬었거든요.

술모임이라고.. 아마 80년대, 그 모임을 한 게 80년대, 한 중반쯤인가 하고, 90년대 초반까지 그 모임을 했어요. 설봉 중학교 생기고 난 다음에 설봉중학교 애들도 장학금을 주고 했어요.

우리 학교에 있던 선생님이 공립으로 가서 설봉중학교에서 근무하셨거든요.

그 분도 같은 회원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도 주자 그래서 그 학교 애들도 장학금을 주고요. 등록금, 등록금 전액을 내주는거죠.

지금이야 등록금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옛날에는 돈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니까..

(참여하신 선생님이)초창기에는 8명인가...그 정도일꺼예요.. 그 분들이 계속, 확대 안 시키고, 그때 거기에 그 모임에 참석했던 멤버들은, 관리자들 빼고, 평교사들만 했었는데, 그 중에 관리자가 나왔죠. 그런 분들은 계속 그냥 가는 거고. 경제가 나아지고, 등록금도 공립화가 되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진 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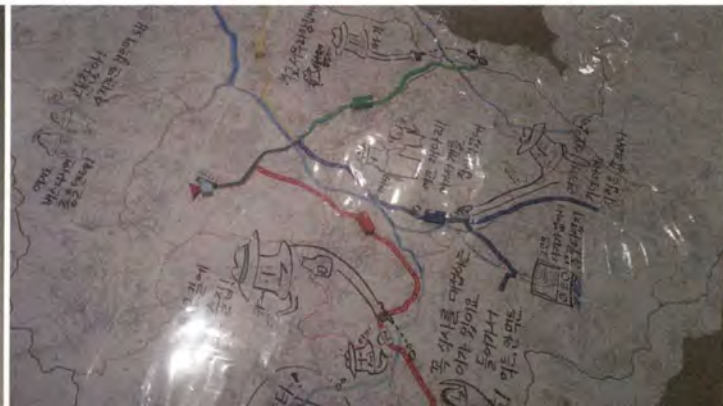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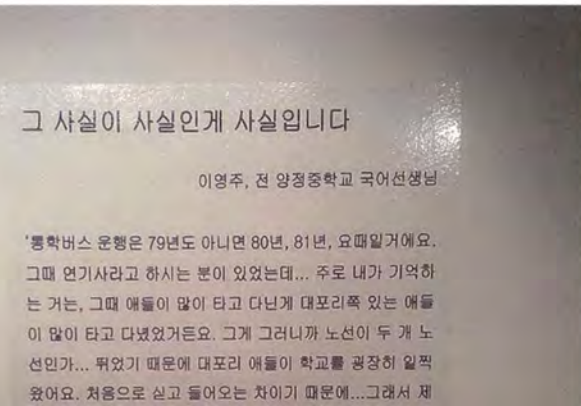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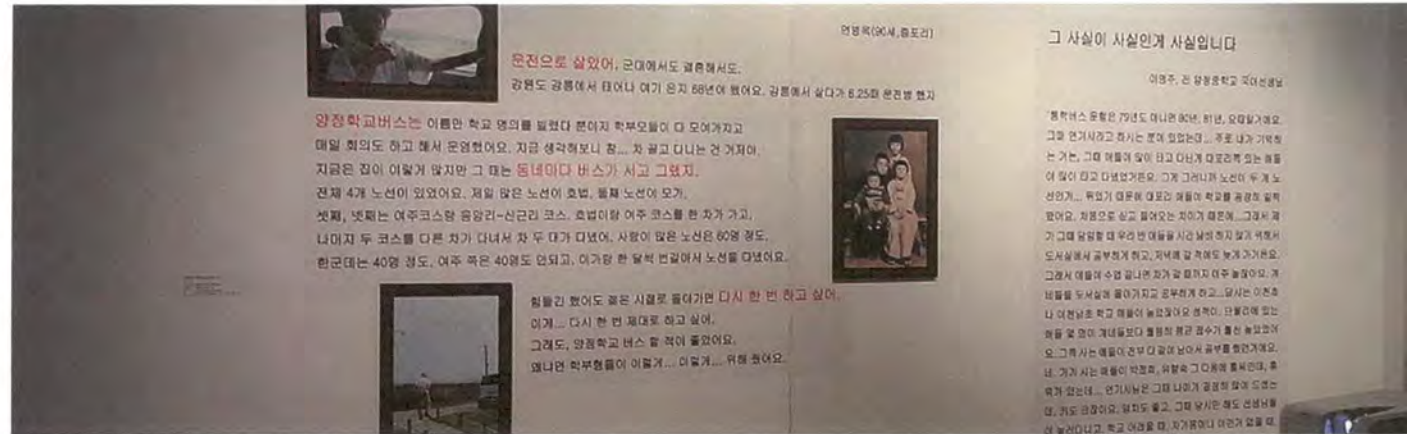
(버스운행은) 79년도 아니면 80년, 81년, 요때일꺼예요. 1년이나 2년 정도 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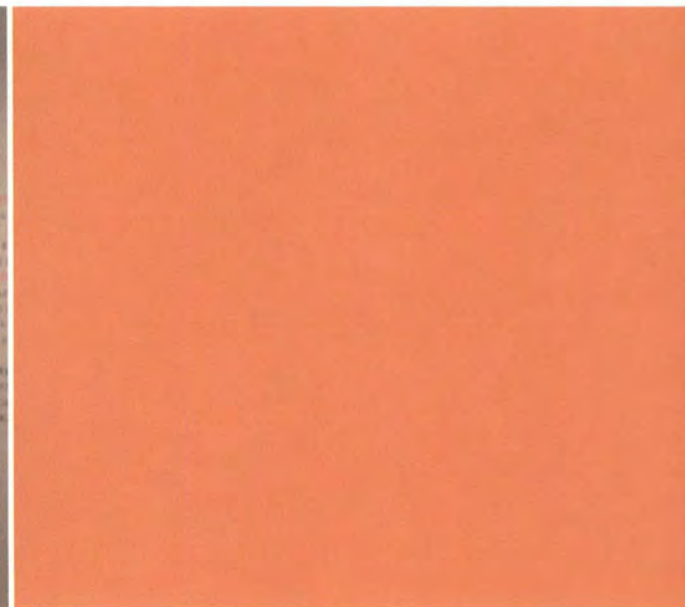
안한 거 같은데, 그 중에서 내가 특히 내가 기억나는 건, 그 때, 우리반 애들하고 단월동 그쪽에 내가 성적을 분석을 했고, 고때 애들이 1학년때 거든요.

1학년 담임이었는데, 개네들 성적이, 보통 이천남이나 이천 애들이 평균이 한 육십 몇 점나오는데, 내 기억에 한 78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내가 애들을 좀 상당히 엄하게 다루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반 성적이, 난 꼴찌반을 맡아도 한 달이면 1등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적을 늘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건 잘 알죠.

그러니까 내가 78년도에 왔을 때, 1학년 담임을 했었거든요. 지금 개네들이 54(세)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때는(버스운행을)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애들도 줄고,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재정도 좀 그렇고... 애들이 내는 돈 갖고는 안되고, 일부는 학교에서 대줬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일자리 따라오게 된 이천, 여기서 살거다

김종선(SK하이닉스 근무, 43세, 창전동 / 아내 양용산, 40세/ 딸 김나래 13세, 아들 김나우, 10세) 텍스트 | 김종선 가족 구술기록 중에서, 사진 (304.8mm×406.4 mm), 가족사진 | 김종선 가족 소장

직장이 맺어준 제 2의 고향, 이천

양용산_ 제 고향은 진도고, 남편 고향은 목포예요. 남편은 SK하이닉스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 때문에 이천으로 왔고, 저는 장거리 연애하다가 결혼하면서 여기에 정착했어요.

쑥스럽네요. 저는 중 1때 학교 때문에 목포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다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시립 도서관에서 방학 때 만났죠. !.

김종선_이천은 회사 때문에 왔어요.

제가 전자공학과다 보니 하이닉스는 전자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지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최초에 인사팀에 입사해서, 5년 있다가, 노사팀에 7년, 현재 총무팀에는 2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전라

도에서 왔지만 회사에 팔도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는 식당이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었어요.

2000년에 입사해서 2002년에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전라도 사람이고 음식을 집에서 해주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처음에 이천에 왔을 때 느낌이, 전라도 광주쪽에 무안이라고 있거든요.

무안에 있는시외버스 터미널 정도, 그때는 다음 날 출근 한다는 생각에 긴장을 해서(그랬는지), 주변을 많이 못 봤어요.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하룻밤을 자야하는데, 모텔촌만 보이고, 그때 당시엔 회사 앞에 숙박 시설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숙사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기숙사 담당이에요.

기숙사 살 때는 룸메이트 선배들과 주말이면 놀러다녔죠. 설봉산에 많이 갔어요. 꼬맹이들 어렸을 적에는 설봉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거기서 찍은 사진이 많아요. 초창기에는 필카로 찍다가, 나중에 디카로 찍었죠.

그리고 제가 지금 90키로인데, 2년 전만 해도 75키로까지 뺏었어요.

1년에 설봉산 정상을 122번 갔었어요. 3일에 한 번씩. 퇴근하자마자 산에 올라가고, 100번째는 가족들과 함께갔어요.

살을 빼야해서.... 어느 순간에는 건강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시간 반 동안 주욱 올라갔다 내려오면 여러 가지 잡념이 없어져요. 제가 겁이 많거든요. 눈이 커서 겁이 많은데, 혼자 새벽에 올라가면, 너무 무서웠어요. 아내는 한 두번 따라가더니 안 가더라고요.

아참, 생각해 보니 2007년도 설봉 공원에서 하는 도자기 축제 때, 타일로 벽화를 만드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가족도 참여했어요.



설봉산에 등산 갈 때마다, 그 타일을 보곤 해요. 참, 좋더라고요. 그 벽화가 없어지지 않은 한, 우리 가족의 추억의 한 자락이 그곳에 있는거죠. 시골 마을의 매력에 빠지다.

양용산_저희가 처음 산 곳은 사동리, 회사 근처였는데 시골마을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어른들이 잘해줬어요. 시골이 배타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저희 살던 빌라 어른들은 첫째 딸을 손녀처럼 잘해주셨어요. 애기 갖고 나서 음식을 잘 못 먹었었는데, 1층 아주머니가 제가 혼자 있으니까 불러서 음식을 만들어주셨어요. 여기서 처음 먹어 본 국수 같은 건데, 빨갭게 해가지고 김치 넣고 먹는게 있더라고요. 애기 갖고 입맛 없을 때는 이게 최고라고 그러시면서 주셔서, 잘 먹고 그랬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 할머니도, 저희 꼬마들이조금 뛰어 놀고 그래도 특별한 말씀도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정착하게 마음을 먹게 된 것도 있어요. 저희가 잘 만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잘해주셨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어른들과 처음으로 용문산에 놀러갔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꼬맹이(첫째 자녀)가 7 개월쯤 됐을 때 제가 계속 집에 있으니까 같이 용문산 가자고(웃음) 해주셔서 용문산 처음 갔었어요. 그리고 1년에 봄하고 가을에,(빌라에 살고 계시는분들과) 같이 물탱크 대청소를 하면서 육개장 같은 거 같이 음식해서 드시고 막걸리나 소주도 한 잔 하며 그랬어요.

정말 시골마을 같았던것 같아요. 또 근처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으면 저희(아이들은) 아직 초등학교를 안 들어갔는데도 초등학생 있는 이웃집 쫓아가서 거기서 그냥 돛자리 깔고 치킨도 먹고 그랬거든요. 여기는(6년 전

증포동으로 이사 왔는데) 그런게 없더라고요.

아직도 연락하는데, 3층 아줌마네가 애기 아빠 회사 다니시고, 2층 아저씨는 아프시다 그러시던데.....

애들 고향은 도대체 어디지?

양용산_2007년인가 8년도에 이사를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살던 사동리, 하이닉스 쪽은 나가면 논밭도 있고 산책다니기도 좋

고, 애들이랑 놀기도 편했는데 학교가

없었어요. 사동 초등학교는 최근에 지어졌어요. 애들이 등학교를 하려면, 학원 버스로 보내야하는 상황이고, 가능하면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쪽(증포동)으로 오게 되었어요.

김종선_이천 지도를 펴놓고 (자동차를 타고) 이천시를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없는 돈이지만 조그만 땅을 사서, 아파트 살 돈으로 집을 하나 딱 지어서 살자. (그런데) 땅값이 그렇게 비싼 지 몰랐어요. 소사리쪽, 울면, 호법, 경사리, 죽당리까지, 이천 전 지역을 돌아다니다 내린 결론은, 결국 아이들 학교 근처가 가장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미래에 애들이 대학에 가거나 그러면 (또 저 역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 부부는) 그런데 최근에 바뀐 것이 어느 순간 애들이 너무 빨리 크는 거예요. 벌써 (우리 딸이) 13살인데,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1~2년 있으면, 우리랑 안논다, 친구들하고 놀지. 같이 추억을 나누고, 같이 살 기간이 6~7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20살이 될 때까지, 너무 이 기간이 짧은거예요, 와이프랑 생각하면서 애들 크는 걸보니까, 어느 순간 번쩍 하듯이, 애들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려면 어떤

게 있을까?를 나름(고민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바뀌더라고요. 우리 고향이 중요한게 아니라 애들 고향은 도대체 어디지? (우리 아이들은) 전부터 이천에서 태어났고, 애들은 스물살이 되어도 자기 고향은 이천일꺼고, 앞으로 애들이 살아갈 날이 우리가 살아갈 날보다 많을 테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수도권, 서울에서 공부를 한다면 전철도 이제 들어오니까, (쉽게 집에) 올 수 있잖아요.

아~ 이천에 살면, 애들이 수도권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티전을 찾더라도, 이리로 내려올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후에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손자들을 데리고 우릴 찾아 왔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 역시 이곳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 노년에 또 다른 소중한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이천이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다시 땅을 보러 다녔죠. (이천에서 정착할) 땅을 살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땅을 찾다, 드디어 올해 집 가까운 곳에 땅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은 열심히 텃밭가꾸고 있어요. 올 가을되면, 고구마를 심어놓은 상태라 가을의 알찬 수확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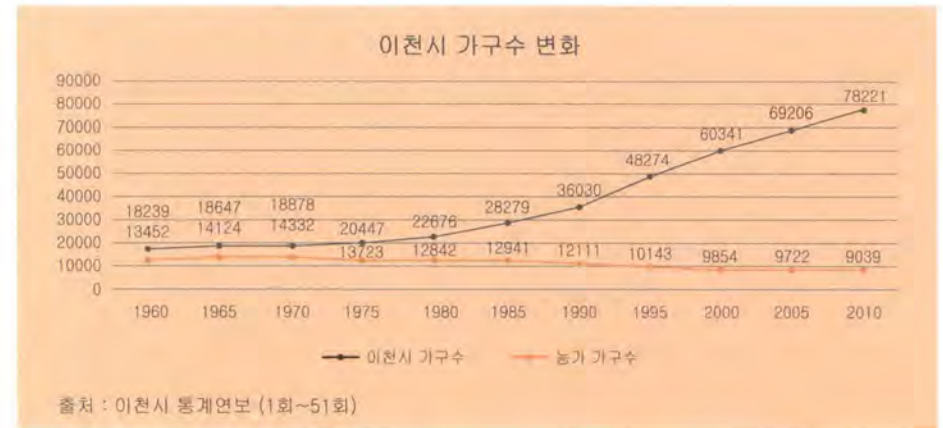
그럼 이웃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텃밭한쪽엔 잔디를 심어 놓았는데 많이 자라면, (2년 전에 구입해서 아직 한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텐트를 치고 그걸로 애들하고 추억을 만들고 하려고요.

(이제) 이천 사람 다 되었죠?

이제 고향이 거기(목포)지만, 19살 때 대학 오면서, 고향을 떠나왔고, 또 직장에 들어와 이천에 정착하게 된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더라구요. 이제 5년만 지나면

제가 제 고향에서 보낸 시간보다, 이천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게 되는 거죠. 직장 때문에 왔지만, 제 인생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으니 한 마디로 이천 (이곳이) 제 2의 고향이 된거죠. 이제 여기서 추억을 만들어야죠.

이천은 'city'이지만 농촌 이미지가 강하다. 길모습은 뽀뽀한 일루미늄 샷시 청문 에 벽돌 주택이지만, 경운기는 물론 승용차, 트럭도 드나들 수 있는 큰 대문, 농업에 필요한 물건으로 가득 찬 여러 개의 창고, 대가족이 모여서 경조사를 치를 수 있는 큰 거실 등 전형적인 농가의 모습이었다.



이천 농부 인터뷰에 이어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가능한 구조의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하며, 대기업 직원인 40대 가장을 둔 4인 가족, 예측 가능한 이야기는 아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들어서자 흔한 아파트 구조이지만, 트렌드인 북유럽 스타일이 아닌 고가구가 놓여져 있고 옛 공중전화, 다이얼 전화기, 카세트 등 오래된 물건이 어우러져 있다.

회사 동료들이 이천보다 편리한 생활권으로 이사를 떠날 때,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통근시간이 짧은 회사 인근으로 거주지를 정하였다. 그리고 이 부부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동안의 일상을 선물로 주기 위해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부터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내 고향인 '이천' 프로젝트. 자녀들 에게 되돌아올 수 있는 고향이 되도록 인근에 작은 땅을 산 것. 앞으로 집 지을 예정이 다. 지금은 텃밭에서 고구마 농사를 함께 짓는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할 지 몰라, 중요한 시험 전날처럼 잠을 설쳤다는 김종선 님, '저는 말이 많지 않아요'라지만 무슨 질문이든 조리있게 답변하시던 부인 양용산 님, 쇼파에 앉아 흘깃흘깃 쳐다보던 사춘기 딸 김나래 양,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몰라 무서웠다고 하던 아들 김나우 군 식구의 모습은 오순도순 가족 그 자체였다.

젊었을 때 직장을 따라서 이천에 왔을 뿐인데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어가며 '이천에서 우리 가족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김종선 님을 만나고선 다음 글귀가 생각이 났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다수가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어떤 사람들이다."

<은희경의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 한다』 중에서>





고려인, 까레이스키, 이천인으로 살기

텍스트 | 유마리나, 신나자 구술기록 중에서, 사진(304.8mm×406.4 mm), 가족사진 | 유마리나 소장

유마리나(41, 안흥리)

연애결혼 했어요.

한국에는 먼저 공부하러 왔다가 남편이랑 한국에서 만났어요.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갈 때 남편이 부모님께 허락받아 한 달만에 한국와서 그렇게 결혼했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못 사니까 집을 팔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주를 가요. 우즈베키스탄 말도 모르고, 친적 다 러시아에 이주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인, 아버지는 고려인이예요

우리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이사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요.

우리도 원래는 보그고라도에 가고 싶었는데 우크라이나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많이 와서 안되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선택되었어요. 허락을 맡아야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이 고려인들이 많아요.

제과제빵, 매듭, 종이 접기 다문화 치안봉사단, 시민경찰도 해요 그리고 우리 다문화 카페에서 매니저 됐어요. 바쁘게 일하면서 살고 싶어요.

신나자(33세, 장호원)

한국과의 인연, 시작은 장난같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시작은 유치했어요. 친구가 사진을 올려 보자고, 어떻게 알아? 인연이 올지도 모르잖아?라고...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아마 지금은 백 번 생각해 볼 건데, 이 사람이 나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 봐야 되겠다, 가서 보니까 인상이 좋아요. 괜찮은데! 느낌도 괜찮은데, 이렇게도 결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 유마리나 ▶▶ 신나자

어머님이 반찬을 만든 방법을 가르쳐주실 때 어려운 것 없이 쉽게 배웠던 것 같아요. 김치가 조금 어려웠어요. 안 해봤던 거라서, 짓갈이 들어가니까, 맛을 알아야 하니까 또 먹어보고 또 먹어보고.

할아버지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살았어요. 아버지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서 6살 때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사 갔어요. 거기서 대학교 졸업하고 엄마아빠가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어요. 지금은 카자흐스탄에 있구요.

꿈이라면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사, 통역사 일을 해 보고 싶어요. 한국말 빨리 배우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한국인들에게 러시아말을 가르칠 수도 있구요. 동생이 성균관대에서 박사과정 중인데 아르바이트로 의료 통역사를 하고 있어서 의료 통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가 사는) 주변에 큰 병원도 없고,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서 병을 옮기는 것도 걱정되서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딸 하나, 7살 아들 하나가 있어요. 동생이 오기 전까지는 솔직히 조금 외로웠어요. 그런데 동생이 오고 나서, 크게 외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2년에 1번씩은 갔었어요.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갔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학원에 가잖아요. 한 번가면 1달이거든요. 학원도 빼야하고...



그런데 내년에는 갈 예정이에요.

고려인들끼리 결혼하는 걸 선호하기도 하는데, 먹는 게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한국 와서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카자흐스탄은 석유도 나고 땅도 크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서 고려인들이 꽤 자리를 잡고 인정받고 사는 것 같아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취업하러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러시아하고 경제교류가 활발하거든요. 돌이란 뜻의 스탄이란 말이 붙은 나라중에 아마 제일 클거예요. 스탄은 돌로 만든 도시라는 뜻인데 길이나 큰 건물들을 돌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로 가도, 고려인들은 갈 곳이 없어요. - 변화하는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유럽으로는 언어가 영어라서 잘 안가요. 그런데 러시아어는 모국어 처럼 쓰니까 러시아로 많이 가요. 저는 러시아어, 한국어, 우즈베키스탄어를 배웠는데 잘은 몰라서 간단한 말은 해요. 학교에서는 러시아어 하는 사람과 우즈베크어 쓰는 학생이 따로 배워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러시아어 쓰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고, 이쪽으로 가면 우즈베크어 쓰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고, 한 학교에서 선생님도 다르고, 책도 다르고, 제도도 달라요. 대학에도 러시아어 쓰는 학과가 있고, 우즈베크어 쓰는 학과가 있어요. 나라 전체가 그래요. 그래도 나라의 언어가 우즈베크어예요. 카자흐스탄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공식적인 언어가 두가지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카자흐스탄어로 바뀌었어요. 서류 같은 거 다.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우즈베크어 많이 써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는 옆집 사람들하고도 소통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러시아로 이사를 가기도 해요.

아이들도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지가 중요해요. 엄마, 아빠가 러시아어 쓰는데

갑자기 우즈베크어를 할 수 없잖아요. 놀이터 나가면, 러시아어 쓰는 애들은 그 애들끼리 놀고, 우즈베크 쓰는 애들은 그 애들끼리 놀고.

최근 이천을 구성하는 새로운 시민으로 결혼이주민 여성들과 이주노동자들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결혼이주민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 다문화협회를 방문하였고 고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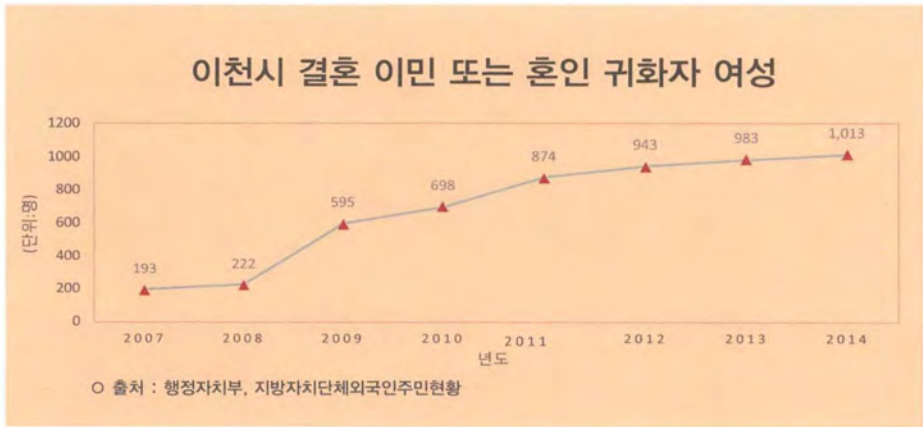
신나자 씨와 유마리나씨는 고려인 3세였다.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할아버지들. 신나자 씨의 할아버지가 당부하던 말씀은 영월 신씨임을 잊지 말라던 것이었다고 한다.

영월신씨는 당나라 말 국내로 들어온 사신이 귀국하지 않고 강원도 영월에 자리를 잡으면서 생긴 성씨라는 것을 인터뷰 하는 중에 알게 되었다. 당나라를 거쳐 고려로, 연해주로, 다시 중앙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온 고려인.

소련에서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은 자국민 문화에 집중하면서 자국어 사용 정책을 펼치면서 고려인들의 삶은 힘들어졌다고 한다. 말이 자유롭고 지인들이 있는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으나 이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끝나지 않은 유랑의 삶을 대변하듯 이름 석자가 역사로 다가왔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성씨중 귀회성씨가 51%. '다문화'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절할가에 대해 관객에게 말을 걸고 싶었다.



고려인, 까레이스키, 이천인으로 살기

연애결혼 했어요

유대리나(사), 안홍리

국에는 먼저 공부하러 왔다가 남편이랑 한국에서 만났어요.
 우즈베크스탄으로 돌아갈 때 남편이 부모님께 허락받아 한 달 만에 한국에서
 함께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배고랐어요. 1년 동안, 피계 만들 때 기름,
 유 하나도 안 쓸려고요. 고기도 식행도 알라요.
 러시아 가면 배 아프요. 이런 한국음식 좋아요. 간단하게, 건강하게,
 (음료)경찰서에서 병역하고, 모인물기, 재고재향, 미등,
 복기 만들거 강사를 해요.
 영리나 학교에서 다문화 인식 강좌 책 요청이 들어와요.
 재, 만들거가 좋아요.
 만들거, 옷 만들 거, 옷을 주문받아서 리플러기도 하고요.
 한 러시아 학생학교에서 3년 동안 배웠어요.
 다문화 지원봉사단, 시민경찰도 해요
 그리고 우리 다문화 카페에서 매니저 했어요.
 바쁘게 일하면 마음도 편도 편 생각을 못해서
 안 이면서 좋아요. 자립보다 더 바쁘게 살고 싶어요.

모님들이 우즈베크스탄에서 못 시니까 집을 팔고 러시아 벨리노보스톡으로 이주할 거요.
 카스탄 말도 모르거, 잔려 다 러시아에 이주했어요. 그래서 고려인들이 많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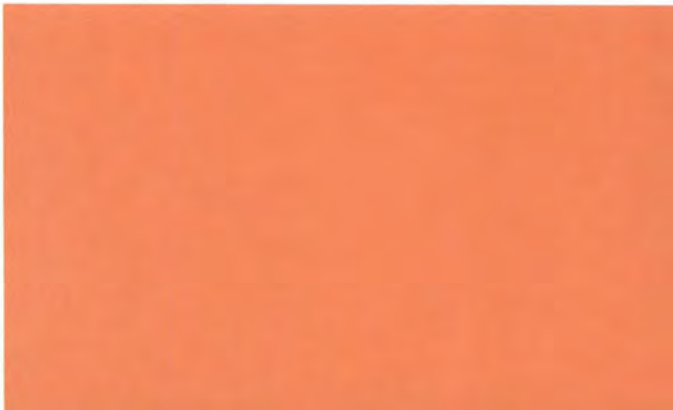
한국화의 인연, 시작은 장난같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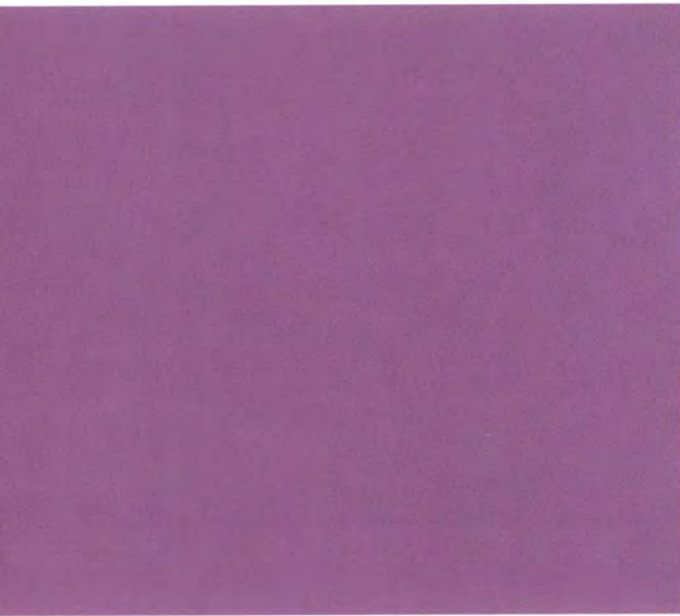
신나지(33)

시작은 유치 했어요. 친구가 사진을 돌려 보자고, 어떻게왔어? 인연이 올지도 모르잖아?라,
 어떻게 만나게 되네요. 애매 지글은 딱 번 생각해 볼건데, 이 사람이 나보다도 어거까지 된
 한 번 봐야겠다. 가서 보니까 인상이 좋아요. 괜찮은데! 느림도 괜찮은데, 이렇게도 결혼
 할 수 있겠다. 여아님이 반찬을 만든 방법을 가르쳐주실 때 어려운 것 없이 쉽게 배웠던 것
 감지가 조금 어려웠어요. 안 허뵈던 거라서, 웃음이 들어가니까,
 맛을 달아 하나씩 또 먹어보고 또 먹어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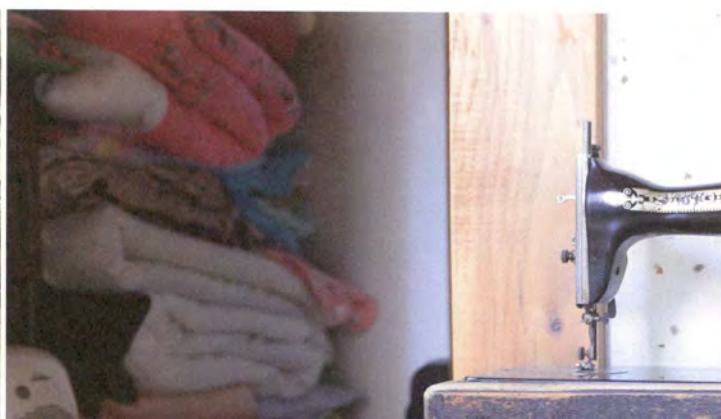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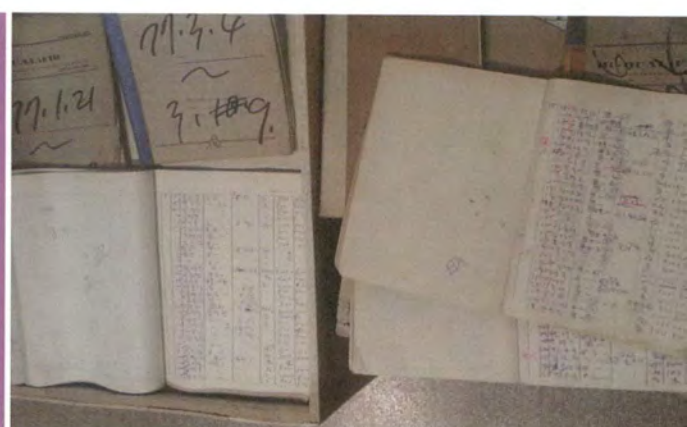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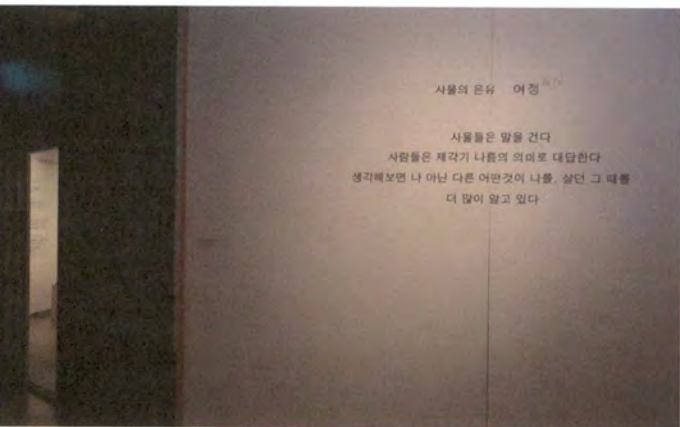
몰이반고부터 우즈베크스탄에 살았어요.
 아버지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서 6살 때 우즈베크스탄으로

이사 갔어요. 거기서 대학도 졸업하고 없애어화가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크스탄으로 갔어
 지금은 카자흐스탄에 있구요! 못이러면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사,
 재 보고 싶어요. 한국말 빨리 배우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한국인들에게 러시아말을 가르칠
 동생이 성공관대에서 박사과정 중인데 아르바이트로 의료 영어를 하고 있어서 의료 영어
 갖게 됐어요. 주변에 큰 병원은 없고, 아직은 아이들이 어렸서 병을 옮기는 것도 걱정해서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이천의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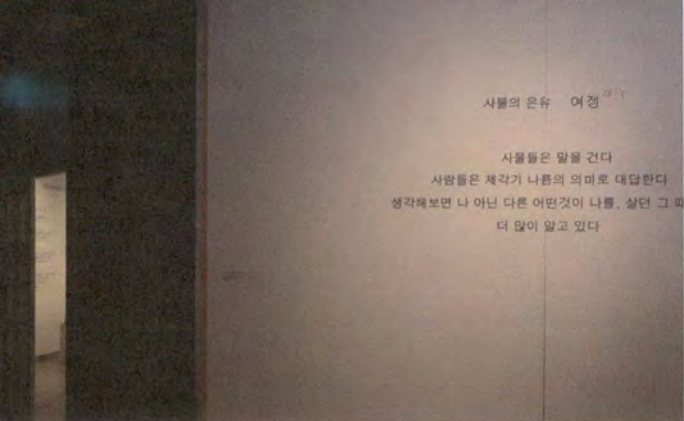
사물의 은유 여정旅情

사물은 말을 건다.

사람들은 제각기 나름의 의미로 대답한다

생각해보면 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살던 그 때를

더 많이 알고 있다



이천의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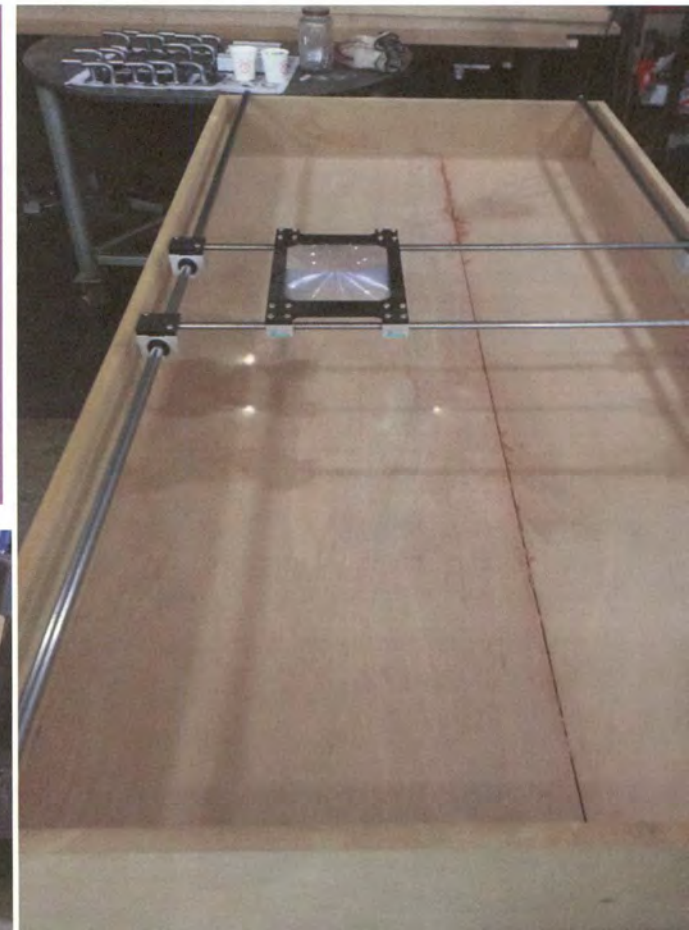
필름카메라로 사진 찍던 시절, 사진관 인화는 필수적이었다.
가족사진 졸업사진 돌·백일 사진은 물론 한강 칠순...등 집안의 대소사를 기록했다.
사진사가 직접 출장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사진이 인화될 때까지 기다려야했다.
사진이 도착한 날은 누가 근사하고, 이쁘게 나왔는지 마루에 둘러앉아
식구들이 머리 박고 사진 한 장에 몰입했던 상황도 종종 있었다.
그때는 필름원판을 찾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어차피 사진관 없이는 원판도 쓸모없었으므로.
필름에 묻은 추억의 흔적들을 먼지 속에서 다시 꺼낸다.

미미사진관이 지금도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 라이트박스제작중, 장소 | 철수작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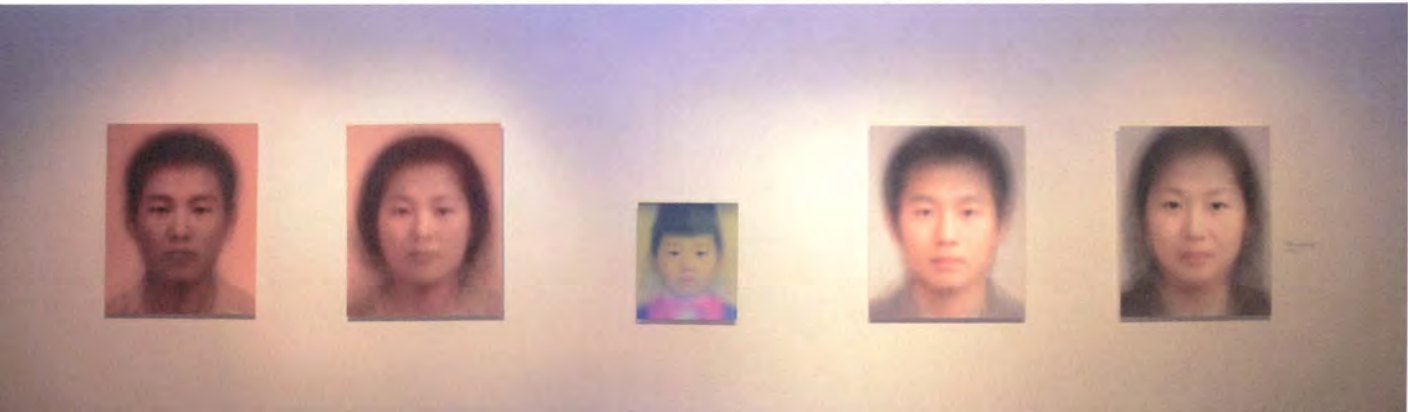
▶ 라이트박스에
돋보기 설치중-철수작업실
◀ 라이트박스위에 원판사진
세트중-전시장 설치작업





설치 | 라이트박스 제작(철근, 목조(900mm×1800mm) 4조,
아크릴, LED라이트, 돋보기
작업 | 철수와 목수
필름 | 미미사진관 소장

1960년~70년대, 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별 원판 필름 설치, 미미사진관 필름제공.





- ◀1967년 남녀 증명사진 필름 100장(1000mm×1200mm)
 - ▲1984년 미술학원 졸업증명사진 필름 100장(508mm×609mm)
 - ▶2000년대 증명사진 디지털자료 100장 (1000mm×1200mm), 레이어드 작업
- 작업_남지우
필름제공_미미사진관

이천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미미사진관에 간다.

텍스트 | 이무정 구술기록 중에서,

사진(304.8mm×406.4 mm)·미미사진관 설치

| 철수와 목수, 필름원판·오래된 사진기·스튜디오 소품 | 미미사진관 소장, 가족사진·장부

| 이무정 소장

멋진 기술자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선 1915년 생이셔 신하 초교가 있는 신하 3리, 거기서 10대째 살았어. 거기가 우리 고향이야.

제정 때 1930년도에, 이농을 하셨어요. 이천국민학교 졸업하고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 따라서 서울을 가신거지. 15살 때 거기서 일본 사람들한테 사진을 배운거야. 그리고 창신 사진관을 하다가 영등포로 옮겨 사진관을 하다가 6.25를 만나가지고, 1.4 후퇴 때 이천으로 피란 와서, 이천서 그냥 살면

널 모레 사진관 명절 때, 추석 때, 설 때, 그럴 때는 많이들 와서 사진들 찍고 그렇게 했지, 아버지 때는 사진이 바로 바로 안 나왔어.

솔직한 이야기로 하면, 우리 아버지는 아주 멋있고 참 기술이 좋은데 단점이 있는거야. <널 모레 사진관>이라 그랬어. 그 당시 양정 학생들이, 안되면 내일 또 와야되고, 내일 또 와야하고 그래서, 미미사진관 6.25 후에 시내로 와서 처음 사진관을 차렸어.

그러다가, 60년대 초반에서 70년대까지 이 집 옆에 체육사 거기 2층에서 사진관을 했어요. 그리고, 70년대 중반서부터, 빈공터를 사서 여기다가 이렇게 건축을 한거고, 우리 약혼사진은 아버지가 남의 사진관에서 찍어줬어..

내 처는 광주야. 그 시대에는 중매를 했지. 경기도 광주, 거기로 선을 보러 갔어. 서로들 마음에 들어서 하기로 한거지. 그 때는 결혼하기로 하면...정식으로 약혼 사진이 있어. 약혼하기로 약속한 뜻으로다가 사진관에서 둘이 찍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그 즉시 약혼 사진을 며느리감하고 아들하고 데리고 나가서 거기 광주 시내 사진관에서 찍는다는 거야. 그 근처 사진관에 그 순간에 견습생만 있고 사진 기사가 없는거야. 그래서 어떡해? 우리 아버지가 찍었어. 내 약혼 사진을 우

리 아버지가 찍더니...세상에, 몇 년 만이야 저, 50년인가 40년 만에 우리 아들이 찍어주네. 나는 성실함으로 나의 아들은 현대화로 나는 여러 가지로 기술이 그렇게 우리 아버지만큼은 못했고, 대신 나는 뭘로 커버가 되는가 하면은 열심히 하는 정성, 성의. 밤에도 일을 할 정도로 일이 많았던 말이야.

그렇게 열심히 한거로다가 항상 미미 사진관은 인기가 있었어. 불면증에 걸릴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은 또 현대화를 시켰지. 이 사람은, 인터넷으로다가 모든 걸 다 하고, 우리는 학교도 3대가 같은 곳을 나왔어. 내가 이천 초등학교 41회여. 우리 아들이 71회, 나의 아버지는 16회. 지금 3대를 이어서 우리 아들이 하고 있으니...참, 나 열심히 했고, 나의 아버지는 제정 때 멋있는 기술로 승부했고, 아들은 아들대로 현대화 되어 있는 걸로 열심히 해 나가니까 다행이야. 그래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야.

얼마나 재밌어.

학교에서 관계없어도, 내가 가져가서 다 찍었어. 우리 애들 다, 반 사진 찍어가지고, 수십장 만들어서 노놉주고 그랬었어.



◀ 1대사장님 일본사진관견습생시절



제1학년 5반 학급기대



約婚記念
(1968.10.11)

- ◀ 이무정 2대 사장님 영등포초등학교 다닐때 찍은 반사진
- ▶ 이무정, 남윤자 부부 약혼사진



- ◀ 미미사진관(입구)
- ▶ 장부책
- ▼ 보관된 사진필름 일부
- ▼◀ 마스크
- ▼▶▶ 전시된 옛날 앨범들



미미사진관내 설치,
한쪽 눈으로 들여다 보는
이천 사람들

사진 | 이천문화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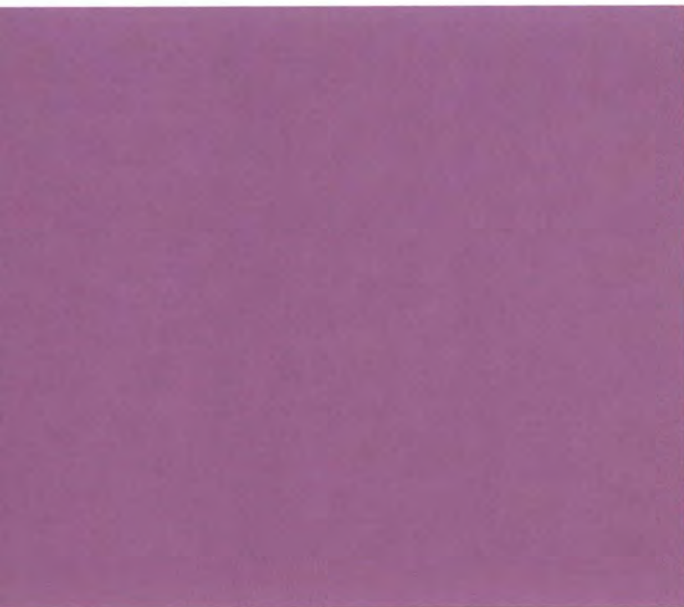
▶ 1953년도이천시내전경 | 정재언
▶▶ 이천역



◀ 1970년대 신둔면 도암리 영양개선의 집에서 병조림 만들기 실습을 하고 있는 모습
▼ 1975년 신둔면 도암리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에서는 집단 재배지역 재배력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다
▼◀ 마지막열차







스튜디오재현과 미미사진관에서 사용했던 오래된 사진기

이천은 18년째 국제조각심포지움을 진행한 조각도시다. 이운복 작가는 장호원에 살림집과 작업실을 가지고 있으며 스텐리스를 소재로 조각을 한다. 그의 작품은 흘러내리는 듯이 미끈하다. 흔히 말하는 조각 같다라는 표현이 딱 어울린다. 그러나 그의 작업은 땀과 힘과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전시하고자 했다. 작업 소리와 조각이 끝난 이후 남은 재료들을 쌓아 놓았다. 전시장 밖 분수대에는 그의 완성된 작품(?)이 놓여있다. 떨어져 나온 것이 있어 완성되는 것이 작품이라면 떨어져 나온 것은 왜 작품이 아니겠는가?

보이는 철재료 조각들과 들리는 노동현장의 소리, 날카롭고 투박하고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철재 잔재 앞에서 망치소리와 연마기소리의 변주를 듣게된다. 작업자의 땀과 에너지를 느끼는 관객이라면, 지난한 과정을 통과한 재료들이 안겨주는 완성의 기쁨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운복 李允馥

2012-현 이천국제조각 심포지움 추진위원

2003 동경예술대학 조각과 연구생

1999 경원대학교 환경조각과 경원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각과 졸업

개인전 14회(서울, 동경, 오사카), 그룹전 120여회(한국, 일본, 중국, 스위스, 미국, 타이완), 주요 작품소장 홍익대학교, 경기도 도자기엑스포 공원, 장성조각공원, 미술은행, 이천시, 포항시립미술관, 크라운 아트갤러리, 홍콩MTR, 말레이시아 LGB Menara

스티 STi

2007년 싱글 [Discovery] 데뷔

2008년 1집 [Here Is A Raw Discovery]

2010년 2집 [unique feSTival]

2011년 3집 [Love Zodiac]

2012년부터 힙합 크루 '프리스트아일 타운' 의 구성원으로 활동

2013년 프로젝트 그룹 술제이&스티의 싱글 앨범 발매

2014년 정규 4집 [Your Fragrance], 4.5집 [Night Thinking] 등을 발매







조각가 이윤복의 작업소리를 음악가 스티가 작업 4가지의 콘크리트뮤직을 만들어 원래의 작업음과 연결하여 소리를 내보낸다.

원음(2')-콘크리트뮤직1(1'30")-원음(2')-콘크리트뮤직2(1'30")-원음(2')-콘크리트뮤직3(1'30")원음(2')-콘크리트뮤직4(1'30")

이천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가 살면서 모으기 시작한 잡동사니,
먼지 속 작은 물건들은 그 때를 말하게 만든다.
여행하면서 가져온 것, 친구와 같이 산 그것, 대통령선거 당시 받았던 라이터,
손자 어려서 구입한 무엇.....
사건의 기억들은 상황이 만들어낸 변주다.
같은 물건에 다른 추억이 주는 삶의 아이러니,
모두가 똑같지 않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가.
조명호 원장님 댁에 진열된 모습 그대로 옮겨왔다.
긴 시간 함께한 먼지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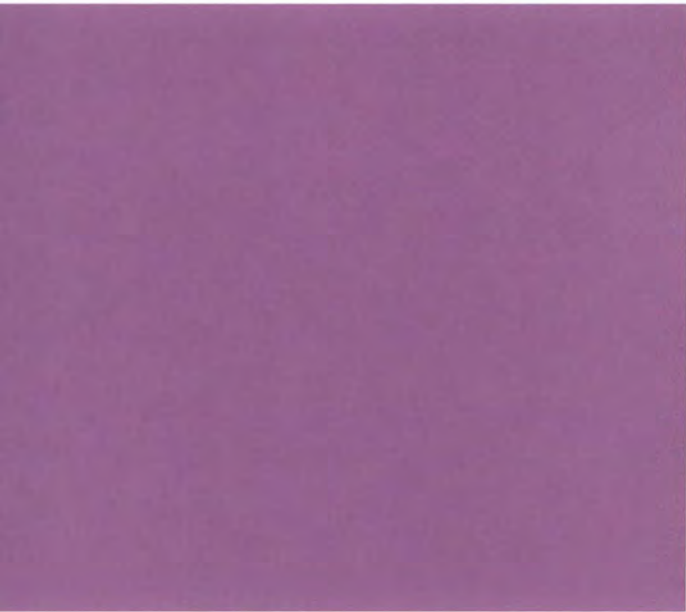


▶ 각종 채 | 서금례 소장
오래된 음반 | 김학필 소장
88기념앨범, 고무호돌이 인형 | 이무정 소장
도자 호돌이 | 조명호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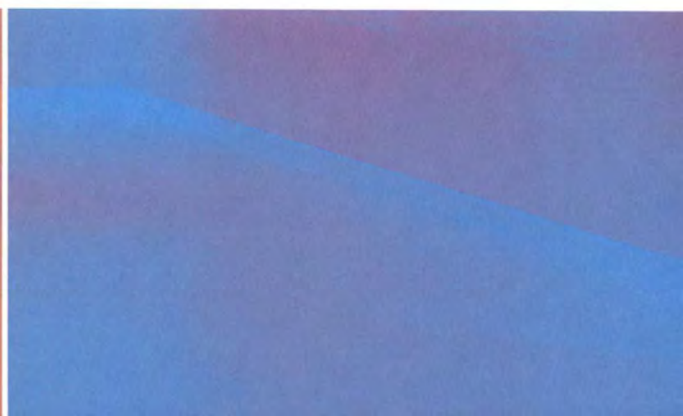




생활소품과 진열장 2조
조명호 이천문화원장 소장



▲오프닝퍼포먼스 리허설, 이스터녹스



또 다른 기록의 시작

진정眞情

기록을 기록하다

2015년 봄에서 여름으로

그리고 가을로

빼앗긴 들에서 태어나신 분들로부터

줄기세포로 세상 들썩였을 때 태어난 꼬맹이까지

이천이 된 사람들의 기억에 기록된 이야기를

다시 사진으로 영상으로 기록하였다

미래유물전에 동행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진가로서 지금을 기록해야 한다는 욕망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작금의 세태가 발전인지 점점 비대해지고 복잡해지는 퇴보인건지도 헷갈리는 이 순간 속에서 단편적인 반성보다는 지금 우리를 다시 바라보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래 유물전”은 그러한 의미에서 “재발전”으로서의 기록입니다.

2015년 지금의 이천을 터전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여러 형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이 공간에 터를 잡고 생활을 하고, 그 각자의 생활들이 모여서 지금의 이천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들을 미시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현재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들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토박이의 삶부터, 전쟁 전후 건너온 사람들의 이야기, 직장을 찾아 이주한 사람들, 결혼이주여성들까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지금의 이 사람들의 역사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미래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유

물이 될 것입니다.

남지우

개인전

2012 맑은 침묵 /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갤러리다수리, 평창, 동탄아트스페이스, 경기

2011 Wirklichkeit / 갤러리빔, 서울

2009 廢寺址 / 갤러리호시, 도쿄

2005 군대, 새로운 시작 / 사진쟁이 1019, 서울

2004 소멸과 생성 / 사진쟁이 1019, 서울

2003 흐르는 도시 / 사진쟁이 1019, 서울

2000 18살 남지우 사진이야기 / 사진마당, 서울

그룹전

2014 scope miami / Miami

2014 SeeMe Takeover / New York Times Square

2013 두 도시 주물이야기 / 입정동 산림동 일대, 경기도미술관



2013 The Story of the Creative / New York City gallery, New York

2013 예술 보부상 / 안산 시민시장, 경기

2009 반-반 사진전 / 인사아트센터

2009 남지우, 홍지운 <카구라자카의 손님>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2008 The Chorus Project / Chorus Hall, Washington DC

Hun gallery, New York

2005 청년미술제 포트폴리오2005 / 서울시립미술관

2003 젊은작가 미래전 / Gallery1019 외 수회

비디오

2013 International Video Dance Festival of Burgundy / LARC국립극장,

Bourgogne France

퍼포먼스

2014 아오병잉 페스티벌 <지우스 클로짓>, 서울연극센터



이천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미래유물전”이 나오기 까지

1. 에피소드

“박서방 여기는 깨끗이 정리하고 공구리 싹 쳐야해!”

“어머니 그럴 것 같으면 뭇 하러 여기까지 와서 집 짓고 살아요!”

2006년부터 산기슭에 집을 짓게 되면서 가끔 장모와 사위 간에 벌어지는 입씨름이다.

나의 친정 엄마는 83세로 광복과 전쟁을 경험하고 산업화를 경험했다. 그래서인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은 나쁜 것이고, 깔끔하고 미끈해 보이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호불호가 명확하다.

흙이 부슬부슬 떨어져 나오는 흙 담벼락이나 비 오면 질척이는 앞 마당은 나쁜 집인 셈이다. 그러니 앞마당에 콘크리트로 매울 것인지 흙으로 남길 것인지에 대해 엄마의 판단은 이미 끝나 있었다. 내 엄마뿐이겠는가. 미끈하고 반듯하게 올라간 옥상집이 신식이었던 때를 살았던 지금의 어머니 아

버지들은 당신이 살아왔던 지난 시절의 삶은 지지분하기 짝이 없던 것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금만 넣고 끓였던 김치국이 지금 것 보다 훨씬 맛있었다는 옛 얘기를 듣다보면 단지 주거환경이 지지분해서 싫다는 것보다도 살기 쉽지 않았던 고된 일상이 아마도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일 거라고 혼자 추측해보곤 한다. 왜 아니겠는가. 두 번의 변란을 겪으면서 살아냈던 하루하루가 되돌아가보고 싶은 추억으로 기억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2. 기획의 시작

처음 미래유물전이 태어나게 된 것은 그동안 지방문화원마다 향토연구를 통해 축적되어있던 마을지와 문화자원들에 대한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자료들이 있다는 것과, 어르신들의 삶이 곧 잊혀져갈지 모른다는 우려로 몇 해 전부터 유행했던 구술 채록방식을 달리 해보자는 약간의 무모한 도전이었다.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 자료들의 시각화로 문화원의 활동을 알리고자 전시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어르신들의 삶이 묻어있는 물건들을 전시하노라면 자연스럽게 물건에 얽힌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했던 것이다. 사람이 사는 데는 도구가 필요하고 이 도구들의 변천이 삶을 변화시키기도 했으니 사물이 끌어내는 스토리에 기대했던 것이다. 내 삶은 초라해 들려줄 말이 없다는 방어막을 이렇게 뚫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략이었다.

한편으로는 오래된 것은 전통이고 전통이라는 이름을 달면 보호 받아야하는 정당성을 확보해 버리는 것에 대한 뼈딕함도 들어있었다.

여기에는 유물과 문화재를 중시하는 올드 한 것들의 집합소가 문화원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더 절실히 하는 곳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자문이고자 했다.

그러나 보기 좋게 빛나갔다. 오래된 물건은 그다지 '좋은 것'이 못되었기 때문이다. 사용하기 편리한 신식 물건들에 비해 오래된 것들은 구닥다리여서 여기저기 고장 난 고물에 지나지 않는 '나쁜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물을 통한 일상의 이야기를 전개해 보리라고 맘 먹었던 것에서, 사람의 이야기와 사물의 이야기를 함께 전시하게 되었다.

▶▶ 기획 방향

- 마을이 만들어지고 도시화되는 과정에 사라질 소중한 생활문화 유무형 자산을 기록, 지역을 이루었던 이야기들을 전시라는 시각적 방식을 활용해 이천 지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시,

- 이천을 만든 이야기를 보고, 듣고, 읽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 지역 공통감성에 대해 생각하고 바라보는 행위를 통해 가치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도록 전개

- 소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보관 되어왔던 문화재격 유무형의 것들 이외, 그 동안 마을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이야기와, 지금을 만들었고 만들고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동안의 활동으로 축적된 이천 만의 자원을 재발견하는 장으로 삶아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가능성을 미리 당겨와 지금을 말하고자 함.

현재의 삶이 미래시점에서는 소중한 무엇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자 했다. 지금 현재 마을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부모세대가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겪어온 일들과 경험 들이 '이천'이라는 지역을 이루고 이천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로 '지금' '일상의 삶'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유물이 된 물건은 어느 시점에서는 그때의 일상의 물건이 아니었겠는가 그렇다면.....'으로 시작 된 전시다.

3. “순정”이 나오다

전시는 말 그대로 펼쳐 보이는 것이다. 기획을 보여주는 무엇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제 유물을 전시하는 것도 아니었다. 미래가 언제인지도 미래의 유물이 무엇이 될지도 전혀 모른다.

무엇을 보여야 할 것인가. 이 지점에서 유물이라는 말과 미래라는 말의 무거움이 쏟아져 내렸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이어지는 어른들의 어른답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미래를 또 미래의 유물은 이것이라고 들이댈 것이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여기저기서 고민의 흔적이 담겨있는 책들을 구해 읽었다. 두 달여를 이렇게 소진했다. 다행히 나를 설득한 것은 삶 자체에 대한 옹고 그림이 아니라 그때의 지금을 살아냈던 사람들을 지탱했던 힘이란 것이었다. ‘그것은 순정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자문을 해주셨던 윤한택 선생님의 말씀 한 마디였다.

여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전시 시작부터 전시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애정 어린 말로 다독여주셨던 지지 덕분이었다. 그렇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나의 지식연장체 즉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순간순간을 넘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시를 응원해 주셨던 분들 덕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는 순정으로 수렴되었다.

특히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들어온 결혼이주여성 고려인들을 인터뷰하면서 ‘다문화’안에 들어있는 역사와 개인의 일상의 관례를 생각하게 했다. 우리나라 귀화성씨 51%라는 팩트를 함께 전시했다. 다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자고 말 걸고자 했다.

90세 되시는 양정학교 버스운전사 연병옥 아저씨 전시는 사실여부 확인이 안 돼 한참을 애먹기도 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긋지긋 하다는 어르신, 그러나 인터뷰가 끝나갈 즈음 젊을 시절로 돌아가시면 뭘 하고 싶으세요라는 질문에 ‘운전을 다시 해보고 싶다고, 제대로 해보고 싶다’던 말씀에 가슴 알싸했던 기억이 남는다.

이천 사람들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것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이 다가왔고 어떠한가를 유보할 수밖에 없는 그 모호함을 느끼면서 전시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아이러니’가 되었다.

4. “여정”과 “진정”이 따라 나오다

순정이 정해지고 나니 사물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여정으로 풀이졌다. 더구나 미미사진관이 제공해주신 어마어마한 자료들은 전시에 상상력과 생명력을 넣어주었다. ‘이천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은 미미사진관에 간다’ 라는 서브타이틀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이 말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만큼 3대째 사진을 찍고 있는 미미사진관. 이천에서의 사진관 운영은 62년이지만 사진관 이전의 사진 찍기의 삶은 70년이 된다고 한다. 1967년도의 증명사진 100장을 겹쳐서 이천의 그 시대 보통의 남녀 얼굴을 재현했다. 그리고 1984년 미술학원 졸업생 얼굴과 2000년대의 남녀 얼굴을 겹침 작업으로 나온 결과물을 나란히 전시했다.

미미사진관을 재현하면서, 그 시절 속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미닫이 문을 달았다. ‘드르륵!’ 미미사진관이 선물한 추억의 소리였다. 지금도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기에 추억을 더듬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지금’의 중요함이다. 미미사진관은 전시흐름을 매끄럽게 해주었다.

사람의 이야기에서 사물의 은유로 넘어가는 다리역할을 필요이상으로 충분히 해주었다. 이천의 조각가 이윤복작가 코너는 조각 작품을 만들고 남은 재료를 쌓아놓고 작품을 만드는 소리를 함께 전시했다. 작품은 미끈하고 아름답지만 실은 그것의 물성은 이런 것이라고 썩으로 드러냈다. 재료가 작품이 되기까지 사람의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그러나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방식으로 전시하고자 했다. 그 외 조명호 이천문화원장님의 수집벽(?)을 적절히 활용한 코너 먼지의 시간은 원장님덕에 놓여있는 장식장 그대로를 떠(?)왔다. 작지만 소중한 시

간이 담긴 물건들. 물건은 구할수 있으나 그 안에 담긴 시간은 누구도 갖지 못한다. 한 사람만 빼고, 순정과 여정을 하나씩 만들어가던 봄과 여름과 가을 초입까지의 작업들이 작업의 과정을 기록으로 담았다. 이천의 기록을 기록하던 시간. 이 과정은 작업에 동참했던 남지우 작가가 맡아 주었다. 진정이라는 이름으로 한 코너가 완성되었다.

5. 이천은 역시 구만리 뜰

나에게 구만리뜰은 고심의 작업이었다. 지금을 말해 왔지만, 여기를 표현할 시각적인 그 무엇. 즉 이천을 무엇으로 보여줄 것인가가 문제였다. 머리에 떠오른 것은 '쌀'이었다. 처음에는 오래전부터 정미소를 운영해 오던 어르신이 계신다는 말을 듣고 이분의 삶을 기록하여 이천을 상징화하려고 했다. 약했다. 정미소는 이천이 아닌 다른 곳도 있을 것이고, 정미소만으로 쌀을 대표하는 이천을 말하기가 웬지 알았다. 그 때 생각난 것이 구만리 뜰이었는데, '확! 오는데~'라는 이천사람의 말에 구만리 뜰에 꽂혀버린 것이다. 구리도 아닌 구만리를 시각화하는 것.

거울 방을 만드는 수밖엔 없었는데 이것이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위험하기도하고, 거울을 세우자니 대형공사이기도 했다. 전시실 안의 공사 작업을 담당해 준 '철수와 목수'팀을 만나지 않았다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천은 또 다른 좋은 인연을 내게 안겨주었다.

그리고 남은 큰 문제는 벼 수급이었다. 용케도 이천국장님의 도움으로 이래저래 상황을 돌파 해나갔지만, 두고두고 웃으면서 욕(?)할 추억으로 남아 있다. 전시 오픈 하루를 사이에 두고 울컥울컥했던 것을 누가 알랴...싶다가도 많은 관람객들이 구만리 뜰 안으로 들어가 사진 찍는것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나온다.

6. 전시 설치를 마치고

이번 미래유물전의 최대의 과제는 민속유물전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옛날 물건 많이 구했냐? 몇 점이나 구했냐? 전시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질문이었다. 이에 반해 전시와 관련해 조언을 구하러 갔을 때, 한 마디 말씀으로 정신 번쩍 들게 해주신 분이 이인수 월전미술관 국장님이셨다.

전시 컨셉에 이래저래 고심이 많을 때 민속물품 전시라면 민속박물관 전시와 다를 게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 민속박물관 전시처럼 하려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이것이었구나. 어사무사하니 속이 편하지 않았던 정체가. 이 한 말씀으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급속히 정리되어 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혼자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시를 보고 당신의 이야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고마워해 주시는 이야기 주인공들에게 무한히 감사할 따름이다. 전시 개막일에 이거 철거해주세요 하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었다. 사전에 미리 검수를 받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 내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시 고맙다고 가을에 수확한 무 만한 고구마를 보내주신 김종선SK 책임자님께 농사도 꽤 잘하신다고, 그리고 잘 먹었다고 지면으로 인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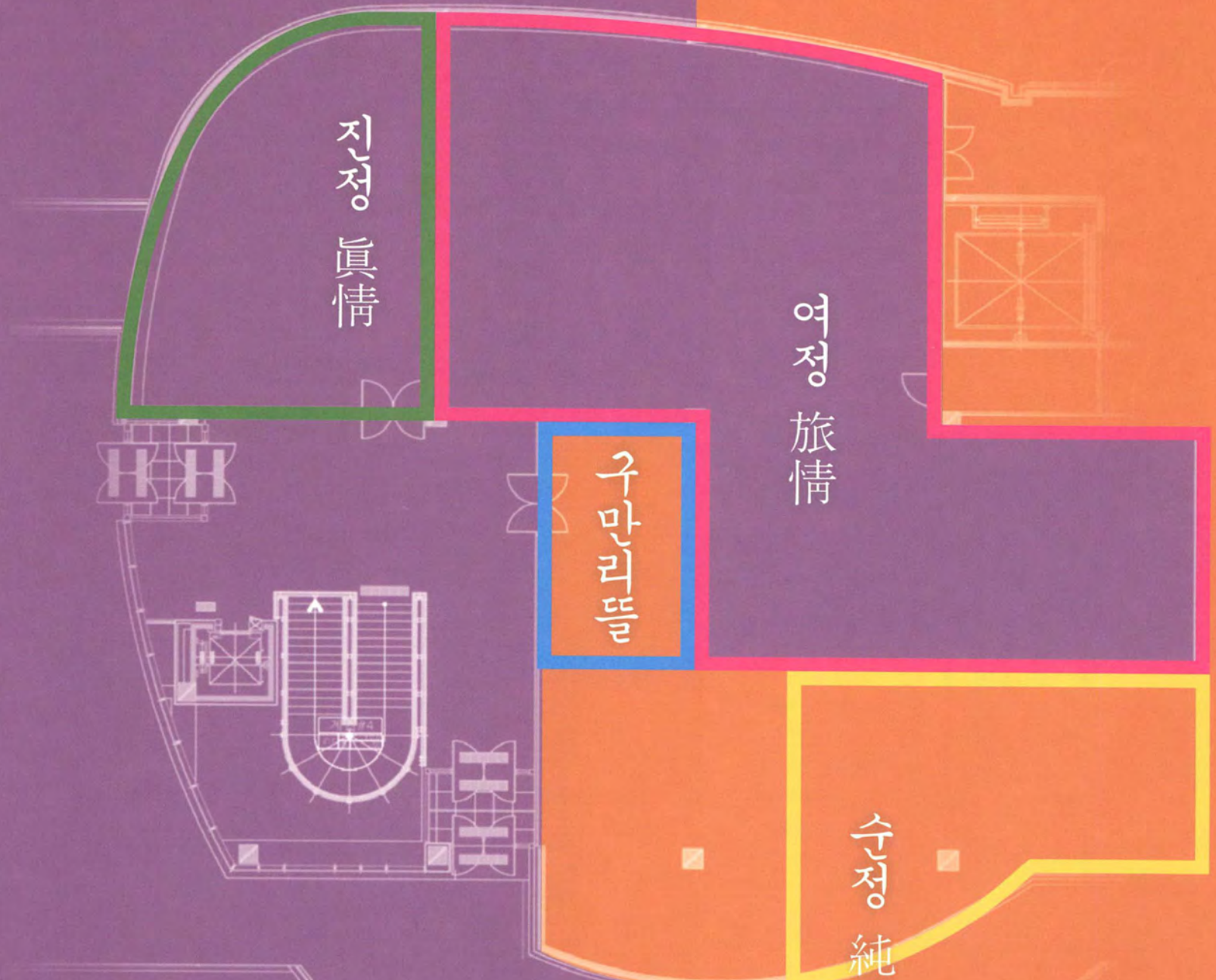
'뭔가 있긴 있을거야?'에 의지해 10여 개월을 믿고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열심히 전시장에서 공부하고 관람객을 위해 안내해주신 이천문화원의 도슨트 자원활동가들, 부족한 전시를 즐겨주신 이천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이천시민이었던 나도 봄, 여름, 가을을 한껏 들떠 보낼 수 있어 감사했다. <민병은>

진정
眞情

여정
旅情

구만리뜰

순정
純情



전시기획·연출 | 민병은, 코디네이터·구슬기록 | 장세영,
사진·영상 기록 | 남지우, 자료조사 | 이미경, 이선민,
인터뷰 협력 | 이천다문화협회, 설치작업 디자인 | 철수와
목수, 오프닝 퍼포먼스 | 이스터 녹스, 홍보물
디자인 | 머스터드, 구슬운문 | 권세미, 도슨트 | 김금순,
김미경, 김양숙, 김용옥, 서미경, 송명자, 이경란,
이미순, 임윤주, 조미경, 조인숙, 정선화, 최순자, 황미애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이천문화원

후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천시, 이천시의회

기획 | 문화집합36.5

신화가 공시적으로 자유를 향한 현재뿐이다.

먼지의 시간

먼지 속에서 찾는 일상의 아름다움.

손 때 묻은 잠동사니.

가만히 들여다 보는 순간, 내게 속삭이는 사물의 소리를 듣게 된다.

소장품/ 조명호 이천문화원장



● 또 다른 기록의 시작 "진정 眞情"

현재를 살아가는 사진가로서 지금을 기록해야 한다는 욕망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

세상은 급변한다. 작금의 세태가 발전인지 점점 비대해지고 복잡해지는 퇴보인건지도 헷갈리는 지금, 우리를 다시 바라보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 작품은 이천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다.

역사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미래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유물이 될 것이다.

사진·영상/ 남지우



기획의도

수없이 출몰하는 사건들 속에서 마을을 만든, 마을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숨 쉬는 역사일 것이다. 지금 것들은 어제의 것들과 그리고 다가올 미래로의 연장이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어 어제, 오늘, 내일은 단절이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는 장들의 펼쳐짐이 지금이 아닐까 한다.

이 전시는 어제를 보고 오늘을 성찰하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는 것이 아니다. 순간순간 순정을 바쳐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일어나지 않은 신비에 대해 꿈꾸고 싶었다.

그들의 삶이 거울이 되어 나의 삶을 바라보는 순간, 그 어떤 것이 각자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발견되길 바라면서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잠재태를 앞에 두고 온 존재로 선택하는 그 순간이 곧 미래임을 말하고자 한다.

전시기획·연출 | 민병은, 코디네이터·구술기록 | 장세영,
사진·영상 기록 | 남지우, 자료조사 | 이미경, 이선민, 인터뷰
협력 | 이천다문화협회, 설치작업 디자인 | 철수와 목수,
오프닝 퍼포먼스 | 이스턴 녹스, 홍보물 디자인 | 머스터드

❖ 전시시간 ❖

10. 1.(Thu) 개관일 16:00~18:00

10. 2.(Fri) - 10. 7.(Wed) 10:00~18:00

10. 5.(Mon) 휴관

무료관람

이천 아트홀 전시실(2층)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40(중리동) T 031·644·2000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T 031·239·1020

2015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생활문화공동체 사업_기획전시

이천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미래 2015. 10. 1(Thu) ~ 10. 7(Wed) 이천 아트홀 전시실 2층 유물전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이천문화원

후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천시, 이천시의회

기획 | 문화집합36.5

● 구만리들

이천 사람치고 구만리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이천에 살다보면 어떤 계기로든 구만리들을 만난다.

이천의 깃줄, 복하천이 신물한 황금빛 구만리들.

복하천은 호범면을 지나며 배곡천, 동산천, 원두천 등 크고 작은

하천과 합류하여 이천 시내 동남부를 지날 즈음엔 제법 넉넉히

흘러들이 마침내 드넓은 구만리들을 품어낸다.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다 이천IC를 거쳐 시내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구만리들을 지나야 한다.

먼 타지에서 돌아오는 길, 집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누구나 누런 금빛으로 일렁이는 구만리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이천 사람이라면.

[전시실 입구]

설치/ 구만리들 재현, 아크릴 거울, 추수한 벼

이미지/ '구만리들의 만추', 龔芝 이영환, 지본수목담채



● 사람들의 이야기 "순정 純情"

곧장 내달리기만 했던 놓을 수 없는 삶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살아내기의 반복

되풀이되던 일상은 삶으로 모아지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순정이라 부르고자 한다

능부의 삶, 삼대 깨 현재진행형 | 김정식(79세, 용면리/ 아내 서금례 76세)

용면리에서 태어난 김정식 할아버지.

모가면에서 트럭타고 열 아홉에 시집 온 서금례 할머니.

그리고 아들 셋과 손주 여섯.

삼대로 이어진 각자의 삶을 합하면 210년.

지금도 여전히 용면리에서의 삶은,

피고지고 또 피고지고.....

텍스트/ 김정식, 서금례 어르신 구술 중에서

가족 사진/ 김정식어르신 제공



● 사물의 은유 "여정 旅程"

사물들은 말을 건다.
사람들은 제각기 나름의 의미로 대답한다.
생각해보면 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살던 그 때를
더 많이 알고 있다.

이천의 얼굴

[1전시관]
설치/ 라이트 박스
이천의 얼굴/ 남지우, 사진합성
필름/ 미미사진관 소장



이천사람은 누구나 한번쯤 미미사진관에 간다 | 아무정(76살, 창전들)

1953년 미미사진관을 차렸으니 올해로 62년째 운영 중이다.
오래전 이천의 아버지들이 다녔던 사진관, 지금은 아들과 손주들이
찾는다.

미미사진관은 기술로 명성을
날렸던 5,60년대, 성실로 신뢰를
쌓았던 7,80년대를 지나 삼대
째 이천사람들의 추억을 기록
중이다.



[2전시관]
설치/ 미미사진관 재현, 텍스트/ 이정무 어르신 구술 중에서
오래된 사진, 소품/ 미미사진관 소장

物 그리고 울

여기에 놓인 철재료들은 스텐리스 조각품의 전신이다.
인간의 몸이라는 물성과 철의 물성의 경계가 충돌하고
비명을 지르며 허물어지는 그 지점에서 작품은 탄생한다.
조각가는 강고한 철재료를 다루려 온 몸에 소리를 실어 춤을 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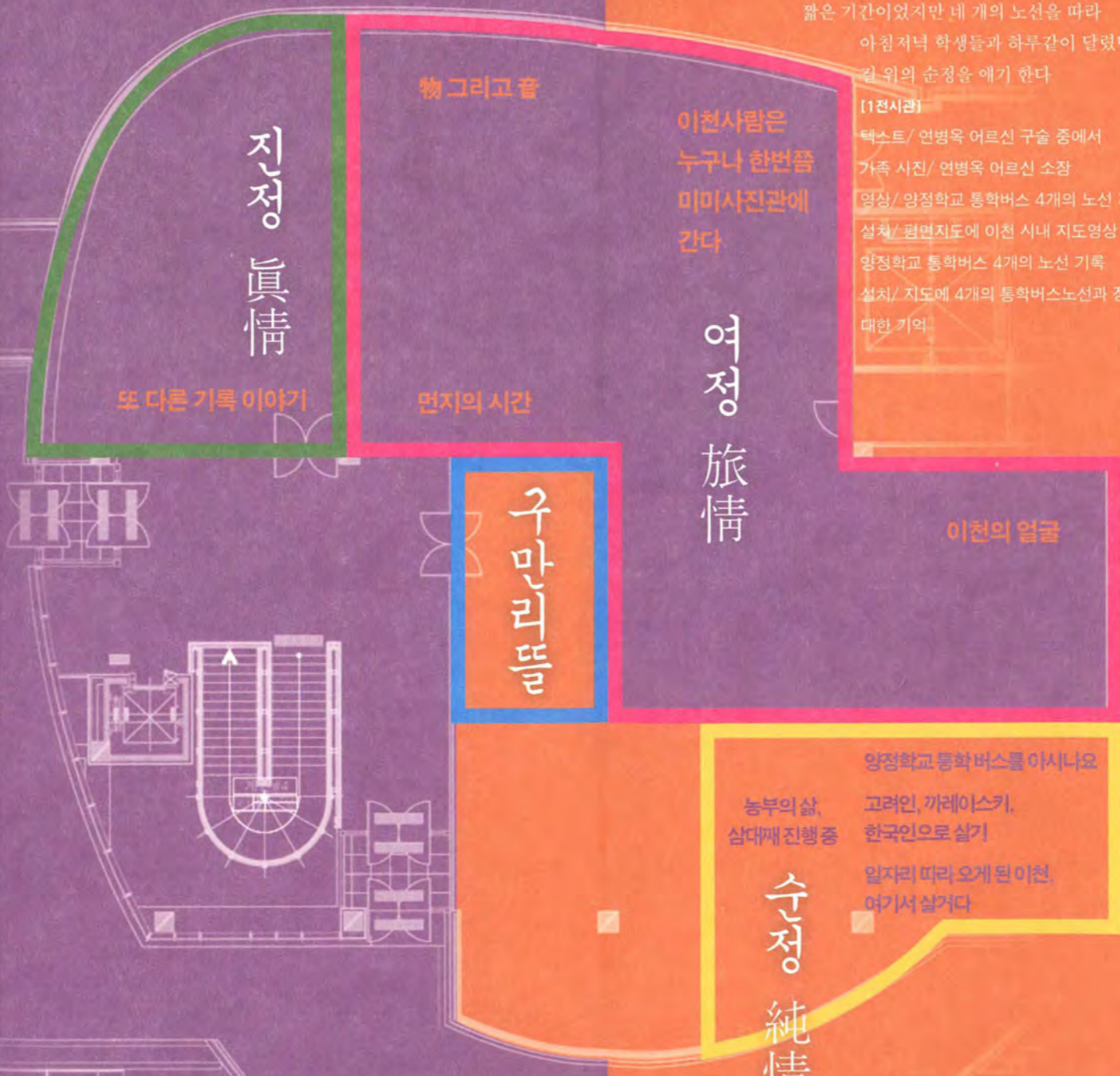
음악가는 작업하는 소리를 4가지 곡으로 전환했다.
원래의 작업음과 전환된 곡이 교차되어 전시된다.
두 명의 아티스트가 펼쳐놓은 각각의 物과 음의 재료는
우리에게 다른 무엇을 상상하게 할 것이다.

[2전시관] 설치/ 스텐리스 조각 재료, 마모된 연마기.



작업소리/ 조각가 이윤복, 녹음 2분
콘크리트뮤직/ 스티(STI), 각1분30초

미래의 신비와 과거의
존재하는 곳은
개인의 신경망 神經網인



지정 眞情

또 다른 기록 이야기

物 그리고 울

먼지의 시간

구만리뜰

이천사람은
누구나 한번쯤
미미사진관에
간다

여정 旅情

이천의 얼굴

양정학교 통학 버스를 아시나요 | 통학버스기사 연병옥
어르신(90세, 증포동)



이천일대 유일했던
여자고등교육기관
양정여자종합고등학교.
고등교육에 대한 시골부모님들의
열정이 보태어 등장하게 된
통학버스.

시외버스가 생기면서 버스사업은 망했다. 그런데 그 때가 제일
좋았다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네 개의 노선을 따라
아침저녁 학생들과 하루같이 달렸던
길 위의 순정을 얘기 한다

[1전시관]
텍스트/ 연병옥 어르신 구술 중에서
가족 사진/ 연병옥 어르신 소장
영상/ 양정학교 통학버스 4개의 노선 재현
설치/ 평면지도에 이천 시내 지도영상 겹쳐
양정학교 통학버스 4개의 노선 기록
설치/ 지도에 4개의 통학버스노선과 장소에
대한 기억

양정학교 통학 버스를 아시나요
농부의 삶,
삼대째 진행중
고려인, 까레이스키,
한국인으로 살기
일자리 따라 오게 된 이천,
여기서 살거다

순정 純情

일자리 따라 오게 된 이천, 여기서 살거다 | 김종선(SK
하이텍스근무, 43세, 증포동/ 아내 양홍산, 40세)

2000년에 시작한 이천에서의 삶,
15년째 이어오고 있다.

사동리에서 시작한 낯선 생활이
그리 어렵지 않게 어거졌던 건
1층 아주머니가 끓여주셨던 입덧
달래던 김치칼국수의 맛과
어린 아들 딸 뛰이다녀도 참아주셨던 아래층 할머니의 배려와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놀러갔던 용문사의 추억이 알게 모르게
작동했기 때문이라
고향으로 가고 싶지만 아이들의 고향은 이천이니 아이들도 고향을
그리워하겠지 싶어
이천을 고향 삼기로 했다.



[1전시실]
텍스트/ 김종선 가족 구술 중에서
가족사진/ 김종선씨 소장

고려인, 까레이스키, 이천인으로 살기 | 신나자(33세, 장호원)/
유미리나(41, 안흥리)

년 영월 신씨야 잇으면 안돼.
비밀처럼 속삭였던 할아버지.
나자씨는 결혼해서 한국인이었던
할아버지처럼 10년째 이천시
장호원에서 산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날아가
결혼허락 받아낸 지금의 남편.
마리나 씨는 남편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 한국에서 20년째 산다.

한국인으로 사는 이들은
'다문화'라고 불린다.
역사가 만든 고려인, 까레이스키,
그리고 다문화.
우리나라 도착 성씨 중 귀화
성씨는 51%이다.
다문화는 누구인가, 다문화는 존재하는가



[1전시관]
텍스트/ 신나자, 유미리나 씨 구술중에서
가족 사진/ 신나자, 유미리나 씨 소장